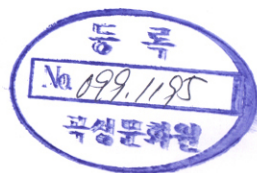


谷城의 農謠·俗謠

金學瑾 編著

谷城文化院



表題글씨 : 雲菴 趙 鋪 敏

發 刊 辭



곡성문화원장
김 학 근

우리 全南은 肥沃한 땅과 溫和한 氣候의 영향으로 農耕文化가 일찍부터 發達하였으며, 이에 따른 抒情이 넘치는 民謠, 農謠를 비롯하여 俗謠가 다른 어느 곳보다 풍부하여 韓國民謠의 寶庫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은 70% 이상이 산이고, 들이 적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밭농사와 길쌈이 다른 地方보다 盛했고, 作業의 能率을 올리고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품앗이, 공동작업 등 相助해 온 우리 고장의 美風이었습니다.

노래가 어떤 틀에 짜인 형식보다는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고 부르는 사람에 따라 사실을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해가면서 부담 없이 불러왔고, 평야지대는 들소리가 많은데 비하여, 우리 고장은 밭노래, 길쌈노래, 시집살이 신세타령, 고된 농일을 하면서도 입을 그리는 심정을 읊은 내용이 특히 많았고, 素材도 多樣하고, 사실도 다채로운 것이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歌唱者의 高齡化로 採錄, 採譜가 어려워 노랫말 위주로 적어 祖上의 슬기와 슬겉을 느끼게 하고, 우리 고장 先祖들의 삶의 哀歡이 서려 있는 農謠와 口傳俗謠를 30餘年間 틈틈히 모은 노래를 엮어 民俗學에 關心이 있는 사람이나, 우리 고장과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民俗資料로 제공하고, 愛鄉心을 기르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미약한 내용과 체제면에 부족하나마 後孫으로서 祖上의 얼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발간하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책을 엮어냅니다.

1999년 12월 일



곡성군수
고 현 석

祝 刊 辭

어느나라, 어느 고장이나 전해 내려오는 속요는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곡성군은 예로부터 인심이 순후하고 충의를 숭상하여 많은 애국선열을 배출하였으며 고을 고을에 조상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있는 「들노래」를 비롯하여 「상여소리」등 일상생활의 희로애락에 대한 가락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에 이를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우리 고장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속요를 곡성문화원에서 집대성하여 「전래속요집」을 발간하게 되었으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이자 더없는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전래 속요를 통하여 우리 고장의 과거와 현재를 느끼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 개척하는 자료로서 우리 생활 속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우리 고장의 민요 연구를 위해 동네 곳곳을 찾아 다니면서 사라져가는 우리 속요에 대한 노랫말과 가락을 수집하고 이책을 발간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곡성문화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여 4만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99년 12월 일

祝 刊 辭



곡성군의회 의장
류 영 호

21세기 밀레니엄시대를 맞아 우리조상의 얼과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곡성 전래속요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곡성군민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김학근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속요는 일반 주민생활 속에서 생성되어 일의 효율을 높이고, 의식의 진행을 도우며 일터에서 혹은 놀이관에서 자연스럽게 불려오던 것으로 창작자나 창작연대가 전해지지 않고, 주민들의 삶과 함께 이어져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곡성의 속요 역시 오랜 세월동안 주민의 생활속에서 전승되어 오면서 우리 곡성사람들의 삶의 체취와 곡성특유의 생활정신이 배어 있는 우리 고장의 정신적인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서구 문화의 범람속에서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문화 현실에서 그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속요를 수집 정리하여 발간하는 것은 곧 우리 고장의 뿌리를 찾고 전통성을 확립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속요집 발간을 계기로 우리 곡성의 속요가 널리 보급되어 후세에 물려줄 값진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곡성 속요집 발간이 있기까지 수고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9년 12월 일

곡성군민의 노래

허 연 작사
김형구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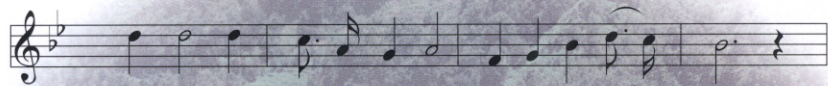
노 - 량 의 장 한 즐 기 이 곳 에 뻗 어
섬 - 진 강 막 은 물 결 이 굽 이 굽 이 엔
단 - 군 의 높 으 신 뜻 길 이 받 들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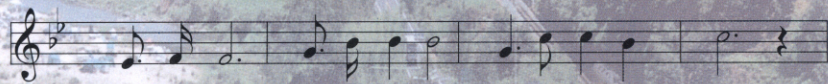
동 악 산 통 명 산 은 맘 도 푸 르 러
어 디 나 황 금 산 이 도 반 겨 르 다
겨 레 의 어 진 일 을 치 켜 온 고 장



대 대 로 이 어 받 은 보 금 자 리 에
땀 흘 러 이 일 한 보 람 알 뜰 자 거 뒤
설 산 성 한 그 루 의 나 무 들 까 지



오 붓 한 우 리 살 림 키 우 며 살 - 자
아 끼 고 서 로 도 와 복 되 게 살 - 자
정 성 께 가 꾸 면 서 즐 겁 게 살 - 자



어 하 라 둥 게 둥 둥 정 다운 곡 성



새 날 의 고 동 소 리 울 려 퍼 진 - 다.





옛 谷城의 노래

바위로 집을 짓고

瀑布水로 술을 빚어

松風은 거문고요

鳥聲은 노래로다

아희야 술을 부어라

與山同醉 하리라

보유자 : 金一基

조사자 : 金學瑾

竹 谷 歌

太平한 이 건곤에
元達한 선비불러
노종선 빌러타고
竹谷江山을 구경가세
萃山에 올라서서
본터 고음을 바라보니
예로부터 古置한 곳
堂洞에 남은 선비
三台 六景을 자랑하네
南陽땅에 발을 가니
臥龍先生이 놀던데라
飛鳳에 나는 鳳凰
留鳳에 머물렀고
桐溪에 길들이니
竹城을 찾으려고
너울너울 下竹을 하니
鳳亭이 이 아닌가?

作 詞 : 金 一
보유자 : 金 鉉 玉
조사자 : 金 學 瑾



목사동의 노래

에헤 동서쪽은

비례산이 솟아 있고

또한 서쪽 서산은

月出山 반달이 있고

南쪽은 풍월 좋은

兄弟峰이 솟아 있고

또한 北쪽을 건너다 보니

寶城江이 흘러가는구나

보유자 : 木寺洞坪里 襄曄奎

조사자 : 金學瑾





▲ 길쌈대는 김점순할머니 (중요무형문화재 제32호 지정)





◀ 민속놀이 달집태우기



액막이 놀이 ▶



◀ 민속놀이 짱치기

곡성 목도놀이 ▶



◀ 모내기 시연 (남도에술제)

길쌈놀이 시연회 ▶





▲ 곡성 상여소리





▲ 과수원, 쟁기질, 보리베기 등을 하며...



목 차

■ 발간사: 김하근(곡성문화원장)	3	■ 옛 곡성의 노래	7
■ 축간사: 고현석(곡성군수)	4	■ 竹谷歌	8
■ 축간사: 유영호(곡성군의회위원장)	5	■ 목사동의 노래	9
■ 곡성군민의 노래	6	■ 화보	10

谷城의 農謠(Ⅰ篇)

■ 곡성읍 농요	19	■ 석곡면 농요	37
1. 모심기 노래	19	1. 모심기 노래	37
2. 논매기 노래	21	2. 논매기 노래	40
3. 장원질 노래	24	3. 장원질 노래	43
■ 옥과면 농요	27	■ 삼기면 농요	45
1. 모심기 노래	27	1. 모심기 노래	46
2. 논매기 노래	31	2. 논매기 노래	49
3. 장원질 노래	36	3. 장원질 노래	59

谷城의 傳來俗謠(Ⅱ篇)

■ 길쌈노래	65	■ 처녀노래	154
길쌈노래(1)	66	처녀노래(1)~(5)	154
베틀노래(1)~(11)	70	■ 단가	156
물레노래(1)~(11)	76	호남가(1)~(3)	156
삼삼기노래	81	만고강산	159
■ 들소리	82	삼국지(三國志)	160
이양가(1)~(14)	82	산수가(山水歌)	162
■ 밭노래	90	초한가(楚漢歌)	164
밭노래(1)~(12)	90	천봉인륜홍	166
■ 사랑노래	95	남한산성	168
사랑(1)~(50)	95	육자백이	168
■ 시집살이	123	죽림칠현(竹林七賢)	169
시집살이(1)~(11)	123	성주풀이(1)~(2)	170
■ 이별노래	134	고구천봉일로	171
이별노래(1)~(21)	134	■ 한탄가	172
■ 상여소리노래	146	한탄가(1)~(12)	172
상여소리(1)~(3)	146		



■ 고독노래	179	1910년대 학도가	213
과부들의 고독(1)~(2)	179	젊음	214
■ 계모노래	180	바다	214
계모노래(1)~(4)	180	팔자탕	214
■ 타령노래	182	대나무노래	215
타령(1)~(9)	182	꿀베기노래	215
■ 달거리노래	187	나비아	216
월령(1)~(2)	187	봄배추	216
■ 부인용품노래	189	사위	217
부인용품(1)~(6)	189	딱주캐는 아이	217
■ 동물노래	192	미나리	218
동물(1)~(11)	192	봄이로세	218
■ 꽃노래	197	남이장군	219
꽃(1)~(5)	199	달가운데 계수나무	219
■ 민속놀이	199	흥부 놀부	220
민속놀이(1)~(8)	199	박연폭포	220
■ 수심가	205	골목바람	221
수심가(1)~(4)	205	순단쏘	221
■ 효노래	207	맷노래	222
효(1)~(3)	207	아주까리 동백	222
■ 시조	209	사도세자	223
시조(1)~(5)	209	갈길어 바빠	223
■ 자장가	211	누나주라	224
자장가(1)~(2)	211	문전 새전 노래	224
■ 권주가	212	돈실로 가자	225
권주가(1)~(3)	212	한라산	225
■ 기타	213	봄	226
득남	213	고향	226

谷城의 農謠

(I 篇)

곡성의 농요는 우리 고장 농민들이 생활하면서 창출해 낸 마음의 노래로서 그속에는 삶의 애환을 하나의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전래 농요를 전라남도에서 1986년에 발행하고 池春相 全南大 教授께서 편찬한 「全南의 農謠」를 그대로 앞부분에 옮겨, 우리 고장의 사람과 우리 고장에 관심이 깊고, 농요를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였다. 다만 편집상 조사지역의 순서를 편의상 바꾸어 게재한다.

■ 곡성읍 농요

○ 조사 상황

■ 조사 지역 : 곡성읍 구원리 1구

■ 조사자

지춘상 교수와 나승만(현.목포대)교수가 1986년 10월 22일 오후 6시~10시 15분까지 조사하고, 당시 곡성군청 공보실 윤현상(현.문화예술제 팀장)씨가 협조하였다고 한다.

■ 조사 내용

이 마을에서 모를 쪼를 때는 소리를 하지 않았고 모를 심을 때와 논을 맬 때, 그리고 만드리가 끝난 다음 동네에 들어올 때 소리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위의 순서대로 녹음하고 상사소리는 낮은 소리와 자진소리의 구별이 없고 논매는 소리로는 ‘방애소리’와 ‘사호소리’를 했으며, 풍장소리는 ‘산아지타령’을 불렀다고 적고 있다.

1. 모심기 노래

곡성읍 구원리, 1986. 10. 22, 지춘상·나승만 조사

앞소리 : 김임기 남·62

뒷소리 : 김학무 남·65, 김학서 남·65, 김형두 남·56, 양태용 남·53, 김주기 남·55

[김입기] 여~여~여허~여~루

상~사~뒤~여~

여~여~여허 여~루 상~사~뒤~여

니가잘나서 일을시겠나

내눈이어두와 환장이네~에~

여~여~여허~여~루 상~사~뒤~여

오동복판 거문고는

출만골라도 잡소리나네~에~

여~여~여허 여~루 상~사~뒤~여

삼각산몰랑이⁽¹⁾ 비가온다

농부님들은 우장삿갓을 들렸고나

여~여~여허 여~루 상~사~뒤~여

일낙서산 해는진디

월출동영의 달이솟네

여~여~여~여~루 상~사~뒤~여

형제봉밑에서 태어나서

이상하기 방송국노래를 허네

여~여~여~여~루 상~사~뒤~여

까막까치는 쪽지가날개고

인생만이는⁽²⁾ 활개가날개로다

여~여~여허~여~루 상~사~뒤~여

(1) 삼각산 머리

(2) 人生은 오직

아서라말어라 네그리마라
 아까운청춘이 다늪어간다
 여~여~여~루 상~사~뒤~여

잠을주고 화초자현디
 목동요지가 행화촌이로고나⁽³⁾
 여~여~여허~여~루 상~사~뒤~여

다되얏다 다되얏다
 노소간이놀다가⁽⁴⁾ 잘되얏고나⁽⁵⁾
 여~여~여허~여~루 상~사~뒤~여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노인보고 웃지를 마소
 여~여~여허~여~루 상~사~뒤~여

2. 논매기 노래

곡성읍 구원리, 1986. 10. 22, 지춘상·나승만 조사

앞소리 : 김임기 남·62

뒷소리 : 김학무 남·65, 김학서 남·65, 김형두 남·56, 양태용 남·53, 김주기 남·55

(1) 방애소리

[김임기] 헤~에~에이~호~오 에~에~에~에헤에~
 나~허~호 호~호~ 헤이~오~오~오~다
 헤~ 헤이 호~오 헤~에에~이 이~헤헤~허으
 헤~이 에~에이호 오호~호~호오다

(3)杏花村이로구나

(4)老少間에 놀다가

(5) 잘되엇고나

무정세월은 걸어간지모르게⁽¹⁾

걸어간고나~

헤~이 헤~이 호~호호 헤에~이~헤~어으

허~어이 헤이호~ 오호~호~다

짙은죽어 화초장헌데

목동요지가 행화촌이로고나⁽²⁾

에~헤 허~이요~ 헤~에~이~허~허허으~

허~어~ 에~이요 오호~호다

오동추야 달은밝은데

님의생각이 주야로났네

헤~헤 헤~이요호 헤~헤~이 헤~허허으~

허~어~허이 헤~이~호~호 오호~호~호호다

청천하늘에는 잔별도많고

그담에⁽³⁾ 밝은달이 비치네~

에~헤 헤~이~호호 헤~에이 헤~허허으

허어~어 헤이~호 오호~호호야

(2) 사 호 소리

※ 끝마무리 지으면서 부른 노래

[김임기] 에이야 사~호~

어~이야 사~호~

앞뒤비루가⁽¹⁾ 신사를 청허네⁽²⁾

어~이야 사~호~

(1) 걸어간줄도 모르게

(2) 牧童擔指 杏花村

(3) 그 다음에

(1) 논밭때 일을 독려하는 사람을 일컬음

(2) 人事를 講한다

어동복판에⁽³⁾ 거먼고소리가

어~이야 사~호

우리농부들 손씻고나가세

어~이야 사~호

권태에가면은 씨암닭이나오네

어~이야 사~호

북어명태를 뜯어서먹세

어~이야 사~호

젊은부인이 앞치매입고

어~이야 사~호

만난반찬에⁽⁴⁾ 보리밥잡수세

어~이야 사~호

무정현기차는 나를 실어다가

어~이야 사~호

일본대판이⁽⁵⁾ 얼마나좋아

어~이야 사~호

꽃같은임비리고⁽⁶⁾ 연락선타네

어~이야 사~호

(3) 梧桐복판의 謔唱

(4) 맛있는 반찬에

(5) 日本大阪

(6) 입을 버리고

청춘말고 늙어서가세

어~이야 사~호

이만허먼은 부잣댁가서

어~이야 사~호

막걸리묵고서 샷갓추세⁽⁷⁾

어~이야 사~호

3. 장원질 노래(산아지 타령)

※ 이 마을에서는 ‘장원질 노래’가 따로 없고 ‘산아지타령’을 이때 부른다.

앞소리 : 김임기 남·62

뒷소리 : 김학무 남·65, 김학서 남·65, 김형두 남·56, 양태용 남·53, 김주기 남·55

[김임기] 어~어허허이 에이야

에~야뒤~허 산아지로~고나

어~어허허이 에~이야

어~야 뒤~허 산아지로~고나

오는새가는새는 수풀밑에서놀고

이청춘허고쳐너고는 이불속에서노네

어~어허허 허이야

어~야 뒤~여 산아지로~고나

문경새제는 웬고쟁가

구부야구비구부는 눈물이로고나

어~어허허이 어이야

어~야 뒤~야 산아지로~고나

(7) 샷갓을 쓰거나 들고 추는 춤

청춘하늘에 잔별도많고
 요내가심에는 말썸도나⁽¹⁾ 많네
 어~어허허어 어이야
 어~야 뒤~여 산아지로~고나

청산리벽계수야 수이감을자랑말고⁽²⁾
 일도창해가 또다시오네
 어~어허허이 에~야
 어~야 뒤~여 산아지로~고나

시들새들봄배추는 밤이실오기⁽³⁾
 임은어디갔다가 인자⁽⁴⁾나오시오
 어~어허허이 에~야
 어~야 뒤~여 산아지로~고나

니가잘나서 일석이나⁽⁵⁾
 내눈이어두와서 환장이로고너
 어~어허허이 에~야
 어~야 뒤~야 산아지로~고나

아서라말어라 네그리마라
 사람의 팔새⁽⁶⁾를 네가그리마소
 어~어허허이 에~이야
 어~야 뒤~여 산아지로~고나

(1) '말썸의' 全羅道 方言

(2) 黃眞伊의 時調一部를 活用하여 노래하고 있음

(3) 밤이슬 '이실'은 '이슬'의 全羅道方言

(4) '인자'는 '이제'의 全羅道 方言

(5) 一色이나의 謔唱

(6) 忽視의 謔唱. 없이 여길.

오동동추야⁽⁷⁾ 달이동실밝고
임의동실⁽⁸⁾ 생각은 주야로나네
어~어허허이 에~야
어~야 뒤~여 산아지로~고나

(7) 梧桐秋夜이나 노래부를때 興을 돕기爲해서 '동'을 한번더 넣어 부름

(8) 입과 같이 同室. 즉 同寢의 뜻

■ 옥과면 농요

○ 조사 상황

■ 조사 지역 : 옥과면 무창리

■ 조사 자

지춘상(전남대) 현 명예교수와 나승만(현.목포대)교수가 유기춘씨를 중심으로 하고, 강춘식씨와 정기창씨를 보조자로 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 조사 내용

모를 썰 때는 소리를 하지 않았고, 모를 심을 때는 ‘상사소리’를 했다. 상사소리는 긴소리와 잣은 소리가 있는데 긴소리로 시작해서 잣은소리로 넘어간다. 논을 네벌 매는데 초벌매는 것을 ‘호미질’이라고 하고 다음에 ‘두벌’, ‘세벌’ 그리고 ‘만드리’라고 한다. 맬때마다 소리는 같은 소리를 했다고 한다. 논매는 소리를 모두 네종류로 이루어진다. 첫째것과 둘째것은 ‘품앗이노래’로 부르는데, 품앗이 노래란 두패로 나뉘어 서로 소리를 주고 받는 교환창 형식을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세번째와 네번째 노래는 선후창 즉, 앞소리를 하면 다음에 뒷소리를 이어받는 일반적인 농요 가창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만드리 때는 일이 끝나면 마을로 들어오면서 풍장소리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풍장소리와 도리깨질 소리, 상여소리를 녹음했다고 적고 있다.

1. 모심기 노래

옥과면 무창리1구, 1986. 10. 22, 지춘상·나승만 조사
 앞소리 : 유기춘 남·64, 강춘식 남·64, 정기창 남·50
 뒷소리 : 유기춘 남·64, 강춘식 남·64, 정기창 남·50

(1) 늦은 상사소리

[유기춘] 여~여~여~여루~ 상~사~뒤~어~
여~여~여~여루 상~사~뒤~여~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을 들어보소
아나농부야 말들어라
여~여~여~여~루 상~사~뒤~여~

일낙서산에는
해가뚝떨어 지는구나
여~여~여~여~루 상~사~뒤~여~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우리농군들 애들도 쓰네
여~여~여~여~루 상~사~뒤~여~

일어나소
우리농군들 애들도쓰네
여~여~여~여~루 상~사~뒤~여~

떠내려온다
점심밥바구니가 떨어져온다
여~여~여~여~루 상~사~뒤~여~

애들도쓰네
우리농군들 애들도쓰네
여~여~여~여~루 상~사~뒤~여~

못하는사람을 오래라놓고

어~여~여~여~루 상~사~뒤~여~

문만걸고서 잠만자는구나

어~여~여~여~루 상~사~뒤~여~

여~어~어~여루~ 상~사~뒤~혀

어~어~루 상~사~뒤~여~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을 들어보소

아나농부야 말들어라

어~어~루 상~사 뒤~혀~

[정기창] 요배미가 끝나면은

장구배미로 건너가세

어~여~어~여루 상~사~뒤~혀

못도나멜발을 다매고감서

금봉채⁽¹⁾ 를 읽고가네

어~여~여~여루~ 상~사~뒤~혀

무덤⁽²⁾ 는 사람을 오래다놓고서

문만에걸고서 잠만에잔고나

어~어~라 좋네

어~어~어~여루 상~사~뒤~혀

(1) 봉황을 새긴 금비녀

(2) '쓸데없는'의 全羅道 方言

[강춘식] 올넌에갈넌에 깔비는총각
언제크먼은 내사랑될까나
어~어 아루와 상사로다
여~여~에~여루~ 상~사~뒤~허

다되야가네 다되야를가네
요논배미가 다되야를가네
여~허~어허~여루 상~사~뒤~허

(2) 잦은 상사소리

[유기춘] 에~어허루 상~사뒤어~
어~어허루 상~사뒤어~

여보시오 농부넌네
이내말을 들어보소
아나농부야 말들어라
에~어허루 상~사뒤~여

잘도헌다 잘도헌다
우리농꾼들 다잘도허네
어~여허루 상~사뒤~여

에~어허루 상~사뒤~여
에~에~루 상~사뒤~여~

에~어허어루 상~사뒤~여
에~어~루 상~사뒤~여~

잘도 한다 잘도 한다

우리농군들 잘도허네

에~어허루 상~사뒤~여~

내가 잘나 일석이냐⁽¹⁾

내눈이어두와 환장이세

에~어허루 상~사뒤~여~

2. 논매기 노래

옥과면 무창리1구, 1986. 10. 22, 지춘상·나승만 조사

앞소리 : 유기춘 남·64, 강춘식 남·64, 정기창 남·50

뒷소리 : 유기춘 남·64, 강춘식 남·64, 정기창 남·50

(1) 술렁 소리

※ 이 ‘술렁소리’는 두패로 나누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환창으로 부른다.

[유기춘] 술러~영 술러~영 술러~영 술러~영아

아~하허~ 아~술렁 술렁~보소

오~올래~아~러~하이야 하야로 네~로~고나

[유기춘] 나는 허허가네 나는가네~

에~허허허허 에~얼~는 방애

어와노~어리나노야 네로고나

[유기춘] 일낙서산에 해떨어~지고

월출동정 달이숫아오네

어와노~어하이야 하야로 네로고나

(1) 色의 諷唱

(2) 방개 타령

※ 이 ‘방개타령’은 두패로 나뉘어 서로 주고받는 교환창으로 노래한다.

[유기춘] 오동추야 달은붉고

임의생각이 절로나네

에~야~헤 허~허리시고야 아하헤~

허허헛~싸 방개로다

[강춘식] 담넘어갈때 큰맘을먹었네

문골⁽¹⁾ 잡고서 낙누⁽²⁾를 허네

헤에야 헤헤~어리나시고야 아허~

어~얼~싸 방~개로 다

[유기춘] 일낙서산 해떨어지고

월출동정에선 달이솟네

어~허리나시고야 아하~헤~

허~헛헛싸 방개로다

[정기창] 마과람불고⁽³⁾ 비올줄알면

엇든잡년이 빨래를갈까

헤에야허헤헤~어리나시고야 달을~

어얼~싸 방~개로다

[유기춘] 저놈의가스나⁽⁴⁾ 눈매를보소

겉눈감고서 속눈만떴네

에헤~야헤헤~허리나시고야 아헤~

허~헛싸 방개로다

(1) 門고리

(2) 落淚

(3) 南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4) 가시내

[정기창] 저놈의가시나 옆프러지면
 일어나키는⁽⁵⁾ 바람에 보듬아나보세⁽⁶⁾
 어~허얼싸 방개로다

[유기춘] 못하는사람 오래다놓고⁽⁷⁾
 문만걸고서 잠만자네
 에~헤야 허~허리나씨고야 아~헤~
 헤허~얼싸 방개로다

[강춘식] 서산넘어 소첩을 두고
 문꼴잡고서 발발을떠네
 허~헤야에헤~허~허리나씨고야 어허헤~
 어~얼싸 방개로다

[유기춘] 저놈의가스나 눈매를보소
 속눈감고서 걸눈만뺐네
 에~헤야 헤~허 어리나시고야 아헤~
 헤~어~ 얼~사 방개로다

[정기창] 날오라네 날오라네
 산골처자가 날오라네
 헤에야 헤 헤헤~어리나시고야 달을~
 어~어혈싸 방개로다

[유기춘] 간다간다 나는가네
 입을따라서 나는가네
 에헤야 헤헤~어리나시고야 아~헤~
 헤~어얼혈~싸 방개로다

(5) 일어나게 하는

(6) 안아나 보자

(7) 오라고 해 놓고

[강춘식] 잘도나허요 잘도나허요
우리농군들 잘도나허요
어~헤야헤~헤헤 허리나씨고야 아~헤~
에~헐얼싸 방개로다

[유기춘] 일어를나소 일어를나소
우리농군들 일어나소
어아헤~허~허리나시고야 아헤~
허~헐얼싸 방개로다

[강춘식] 애들도씨요⁽⁸⁾ 애들도씨요
우리농군들 애들씨요
오호호야헤헤~어리나씨고야 아허~
에~헐얼싸 방개로다

(2) 마 소 리

앞소리 : 유기춘 남·64

뒷소리 : 강춘식 남·64, 정기창 남·50

[유기춘] 에~에~라~마~뒤허뒤허~
에~에~라~마~뒤허 뒤허~

나는 간다 나는간다네~
에~에~라~마~뒤허 뒤허~

잘도허네 우리농군
에~에~라~마~뒤허 뒤허~

일낙서산에 해떨어지고~
에~에~라~마~뒤허 뒤허~

(8) 애쓰십니다

우리농군들 애들도쓰네
에~에~라~마~뒤허 뒤허~

청사초롱 불밝혀들고~
에~에~라~마~뒤허 뒤허~

(4) 사호 소리

[유기춘] 에~헤에라 사~호~
에~헤~헤에라 사~호~

다되얏네 다되야간다
에~헤~에~라 사~호~

요논배미가⁽¹⁾ 다되야간다
에~헤 에~라 사~호

얼~쑹 덜~쑹 호랭이쑹지
에~헤에~라 사~호~

일낙서산은 해떨어지고
에~헤에~라 사~호

얼쑹덜쑹 잘도나현다
어~허에라 사~호~

간다간다 내가돌아를간다
어~허 허~라 사~호

일낙서산은 해떨어지고
어~허허라 사~호

(1) 이 논

3. 장원질 노래(풍장소리)

※ ‘만드리’를 하고 상머슴을 소에 태우고 동네로 돌아오면서 풍장소리로 ‘두름박타령’을 부른다.

【두름박 타령】

[유기춘] 잘도헌다 잘도나헌다
두름박어~하 어~헐로

우리농군들 잘도나허네
두름박어~하 어~헐로

노세노세 젊어서노세
두름박어~하 어~헐로

인제가면 언제나올까
두름박어~하 어~헐로

못다멜밭을 다매고나가네
두름박어~하 어~헐로

두름박어하 어헐로
두름박어~하 어~헐로

■ 석곡면 농요

○ 조사 상황

■ 조사 지역 : 석곡면 월봉마을

■ 조사자

지춘상교수 및 나승만교수가 1986년 10월 26일 12시부터 13시 50분까지 석곡면 사무실에서 곡성군청 공보실 이강우씨 안내로 조사

■ 조사 내용

이 마을도 모를 쥘 때는 소리를 하지 않았으며, 모를 심을 때는 상사소리를 했고, 소리와 잣은 소리의 구별이 없다. 그리고 논을 맬 때는 초벌은 호미로 매는데 산아지 타령을 불렀고 풍장을 할 때는 상머슴을 사다리에 태우고 오는데 이때는 어리롱타령과 산아지타령을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어리롱타령은 곧 진도아리랑을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위의 농요를 녹음하고 산에 나무하러 다니면서 산타령과 달구질소리, 신세타령 육자백이 등을 녹음하였다.

1. 모심기 노래

석곡면 월봉리, 1986. 11. 1, 지춘상·나승만 조사

앞소리 : 홍승일 남·73, 김윤기 남·65

뒷소리 : 심영길 남·55, 홍승일 남·73, 김윤기 남·65

[홍승일] 허~여~ 여허~여~루

상~사~ 뒤~허~

여~여~여허~여루~ 상~사~뒤~허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한말 들어보고

아나농부야 내말듣소

새피랭이 꼭지에다가 개화를⁽¹⁾ 꽃고

마후래기춤 이나 추어보세

여~여~여허~여루~ 상~사~뒤~허

충청도 중복성은

주지가지가 열렸고

강남의 강대추는

아그대아그대 열렸네

여~여~여허~여루~ 상~사~뒤~허

개고락지란놈이⁽²⁾ 방거를⁽³⁾ 씌고

동네가서 이장반장을찾네⁽⁴⁾

여~여~여허~여루~ 상~사~뒤~허

허~여~여허~여~어루

상~사~뒤~이허~

여~여~여허~여루~ 상~사~뒤~허~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니가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제

여~여~여허~여루~ 상~사~뒤~허

(1) 桂花

(2) 개구리, '개고락지', '깨구락지'는 '개구리'의 全羅道方言

(3) 방립, 벵거지.

(4) 里長班長을 찾네

떠들어온다 떠들어온다

점심바구리 떠들어온다

여~허~여허~여루~ 상~사~뒤~허

이배미를 어서심으고

장구배므로 넘어가세

여~허~여허~여루~ 상~사~뒤~허

일낙서산의 해는지고

월충동정의 달은숫아오네

여~허~여허~여루~ 상~사~뒤~허

저건너 갈미봉의

어둠침침 묻어온것

모두다 비아닌가

여~허~여허~여루~ 상~사~뒤~허

허리에다가 우장삿갓을 두리고⁽⁵⁾

눈에지심을 매여보세

여~허~여허~여루~ 상~사~뒤~허

허~여~여허~여~루

상~사~뒤~어

어~여~여허~여루~ 상~사~뒤~여

[김윤기] 떠들어온구나 떠들어온구나

점심바구리가 떠들어오네

어~여~여허~여~루 상~사~뒤~허

(5) '두리고'는 '두르고'의 全羅道方言. 싸서 가리고의 뜻

오뉴월 보리밭을 실컷묵고서⁽⁶⁾

방구나 둥둥둥 꺾어보세

여~여~여허~여~루 상~사~뒤~허

어럴러럴 상사도야

어~여~여허~여루~ 상~사~뒤~어

오뉴월에 흐른땀이

칠팔월에 열마되니

요런경사가⁽⁷⁾ 또있느냐

허~여~여허~여~루 상~사~뒤~허

2. 논매기 노래(산아지 타령)

석곡면 월봉리, 1986. 11. 1, 지춘상·나승만 조사

앞소리: 홍승일 남·73, 김윤기 남·65

뒷소리: 심영길 남·55

[홍승일] 에야~뒤야 나허허이 에야

어허디여 산아지로~곤나

에야~뒤야 나허허허이야~

어허뒤여라 산아지로~고나

삼산은발락 청천에뜨고

이수중로는 백로주를가세

에야~뒤야 나어허허이야

어허뒤여라 산아지로~고나

(6) 실컷묵고서. '묵고서'의 全羅道方言

(7) 이런慶事가

오리락내리락 잔지침소리
 천하에 열려라도 막목어낸다
 에야~뒤야 나허허허이야
 어허뒤여라 산아지로~고나

몰래야자세야 빙빙빙돌아라
 남의집처녀⁽¹⁾가 뱀이실을맞는다
 에이야~뒤야 나허허허이야
 어허뒤여라 산아지로~고나

삼산은발락 청천에뜨고
 이수중로는 백로주를가세
 에야~뒤야 나허허허이야
 어허뒤여라 산아지로~고나

가노라간다 내가돌아간다
 정든님따라서 내가돌아간다
 에야~뒤야~ 나허허허이야
 어허뒤여라 산아지로~고나

왜왔든가 왜왔든가
 울고나갈길을 내가왜왔든가
 에야~뒤야 나허허허이야
 에헤뒤여라 산아지로~고나

에야~뒤야 나허허허이야
 어허뒤여라 산아지로~고나
 에야~뒤야 나허허허이야
 어허뒤여라 산아지로~고나

(1) '남의집 도령'을 잘못 부르고 있음

나는가네 나는가네
정든님따라서 내가돌아가네
에야~뒤야 나허허허이야
어허뒤여라 산아지로~고나

[김윤기] 에야~뒤야 나허허허야
어허뒤여라 산아지로~고나
에야~뒤야 나허허허이야
어허뒤여라 산아지로~고나

우리님~오실때는 인사를못하고
행주치마입에물고 입만빵긱
에야~뒤야 나허허허이야
에헤뒤여라 산아지로~고나

가지많은남귀는 바람잘날없고요
자석많은⁽²⁾ 우리부모 속편혈날이없네
에야~뒤야 나허허허이야
어허뒤여라 산아지로~고나

잘도나헌다 잘도나허네
우리~농부님께 잘도나헌구나
에야~뒤야 나허허허야
어허뒤여라 산아지로~고나

(2) 子息의 全羅道方言. 卽 子息많은

3. 장원질 노래(풍장소리)

석곡면 월봉리, 1986. 11. 1, 지춘상·나승만 조사

앞소리 : 홍승일 남·73

뒷소리 : 김윤기 남·65, 심영길 남·55

- ※ 이 마을에서는 소를 타고 동네로 돌아올때 이 ‘어리롱타령’과 ‘산아지타령’을 부른다고 한다. 이 노래들은 그 가락이 거의 같기 때문에 번갈아 부른것 같다.

오동동추야 달이동동볶고⁽¹⁾

임이동동생객이⁽²⁾ 저리절로난다

아리아리롱 서리서리롱 아라리가났네에에

아리랑 응아얼씨구 아라리가났네

문전옥토를⁽³⁾ 다팔아묵고

가막소생활이⁽⁴⁾ 내라웬일인가

아리아리롱 서리서리롱 아라리가났네에에

아리랑 응아얼씨구 아라리가났네

허리끈잘라감선⁽⁵⁾ 논사논깨⁽⁶⁾

논가운데로 신작로가난다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롱 아라리가났네에에

아리랑 응아얼씨구 아라리가났네

(1) ‘볶고’는 ‘밝고’의 全羅道方言

(2) 생각의 謔唱

(3) 門前沃土. 바로 門밖에 있는 기름진 논

(4) 監獄所生活의 謔唱

(5) 허리끈을 풀라매 가면서

(6) 논을 사농으니까의 全羅道方言

에야~뒤야 나허허이에야

어허디여라 산아지로~고나

에야~뒤야 나허허이이야

어허뒤여라 산아지로~고나

가노라간다 내가돌아간다

정든님따라서 내가돌아가네

에야~뒤야 나허허이이야

어허뒤여라 산아지로~고나

■ 삼기면 농요

○ 조사 상황

■ 조사 지역 : 삼기면 원동리 학동마을

■ 조 사 자

지춘상(전남대) 현명예교수와 나승만(현.목포대)교수가 1986년 10월 22일 심인섭(당시 옥과면사무소)와 곡성군청 공보실 윤현상(현.문화예술팀장)협조로 황수성씨 중심으로 하고 김종석, 노일원, 서상원씨를 협조자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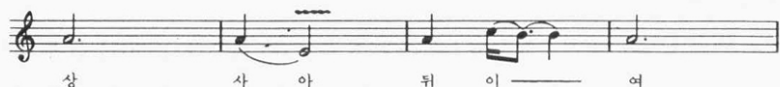
■ 조사 내용

모를 찢 때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고 모를 심을때 상사소리를 했으며 논을 네벌 매는데 초벌매는 것을 ‘호미질한다’고 하며, 두번째 매는 것을 ‘한벌맨다’고 하며, 세번째 매는 것을 ‘군벌맨다’라고 하며 네번째 매는 것을 ‘만드리 한다’하는데 논매기 소리는 호맹이질 소리를 제하고는 다섯장으로 되어 있으며 두패로 나누어 부르는 교환창 형식을 취한다. 옥과에서는 이와같은 형식을 ‘폼앗이 노래’라고 했다. 그리고 만드리 때는 피를 뽑아들고 춤을 추면서 잣은 방개타령을 주로 불렀다. 또 만드리때는 논매는 것이 끝나고 머슴을 소에 태우고 마을로 들어오면서 산아지 타령을 불렀다 한다.

1. 모심기 노래

상사소리 (♩ = 120) 중머리
 (가사에 따라서 기본 장단들의 변화가 있다)
 <받는소리>

지훈상 채집
 박용재 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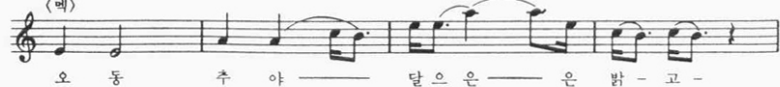
<메기느소리>



<반>



<백>



삼기면 원동리 학동마을, 1986. 10. 22, 지춘상·나승만 조사

앞소리 : 황수성 남·65, 김종석 남·61

뒷소리 : 노일원 남·63, 서상원 남·57, 황수성 남·65, 김종석 남·61

[황수성] 여~여~허~여루 상~사뒤~여
여~여~ 여~여루 상~사뒤~여

여보시오 농부네들
이내말을 들어보소
아나농부들 말들어요
여~여~ 여~여~루 상~사뒤~여

여~허 허~여루 상~사뒤~요
여~여~ 여~여루 상~사뒤~여

여보시오 농부네들
이내말을 들어보소
아나농부네 말들어요
여~여~ 여~여루 상~사뒤~여

여보시오 농부네들 이내말을 들어보소
아나농부네 말들어요
이배미도 꽃고
저배미를 꽃고서
장구배미로 돌리술서 소서
여~여~ 여~여루 상~사뒤~여

여보시오 농부네들
이내말을 들어보소
아나농부네 말들어요
여~여~ 여~여루 상~사뒤~여

비가온다 곡성산천⁽¹⁾ 비가온다
우장삿갓을 허리에다 메고
여기도꽃고 저기도꿈세
여~여~ 여~여루 상~사뒤~여

구만저만 파형국하고
객기집으로⁽²⁾ 돌려가세⁽³⁾
여~여~ 여~여루 상~사뒤~여

[김종석] 저건너라 갈미봉을
어둠침침 비문어오니
우장을 삿갓을
허리다 두리고
모서리밭으로⁽⁴⁾ 잔지심가세
여~여~ 여~여루 상~사뒤~여

오동추야 달은 밝고
임의생각 절로난다
여~여~ 여~여루 상~사뒤~여

(1) 谷城山川
(2) 各己집으로
(3) '돌아가세'를 그릇노래함
(4) 어떤 形體의 가장자리

2. 논매기 노래

(1) 초벌매는 소리(호맹이질 소리)

초벌매는 소리 (J. ㄴ 60)
 <매기는소리>

지춘상 채집
 박용재 채보

우 리 에 - 에 노 오우 노 호호 호옹 군
 자 할 도 어 허 나허 허 허 이네
 (논는소리)
 헤 헤 헤 에 야 아 아
 허 어 이 여 방 헤 애
 허 허 영 계 에 노 호 호 오 자

삼기면 원동리 학동마을, 1986. 10. 22, 지춘상

앞소리 : 황수성 남·65, 김종석 남·61

뒷소리 : 노일원 남·63, 서상원 남·57

[황수성] 헤~헤헤~야~하하하하~
 허~이허~ 아~헤~
 허~허 형~제놀~아
 헤~헤헤~야~하하하하~하
 헤~이허~ 하하~헤~헤
 허~허허 형~제놀~아

[김종석] 잘도~허허허허 허허허네
잘도~허~허나 허~네
헤~헤헤~야~하하하하~하
헤~이허~바~헤~헤
헤~허허 형~제노~자

[황수성] 우리농호호농군⁽¹⁾ 잘도호호나허네
헤~헤헤~야~하하하~하
헤~이허~바하~헤~에
어~허~형~제노~자

일락서허서산 해떨허허러졌네
에~헤헤~야~하하하하~하
헤헤~이~어~바하~헤~에
허~현 형~제노~자

오동추 달은밝고 임의생각절로나
헤~헤헤~야~아하하하하
헤~이~어~바~하헤~헤
허허 형~제노~자

(1) 이 마을에서는 '우리농호호농군', '해떨허허러졌네'와 같이 中間에 소리를 한번 굴리는 唱法으로 노래하고 있음

(2) 두벌매는 소리

두벌매는 소리 (J. ㄷ 40)

(두패로 나누어 부르며 가사에 따라서 장단의 길이는 달라진다)

〈합창〉

지춘상 채집

박용재 채보

비 - 묻 어 - 히 히 오 온다 아 하 아 안

비 묻 우우 - 더 어 히이 오 호 온 다 - 아 하

곡 - 성 - 산 - 안 천 - 비 - 묻 우 - 더 오 - 온다

삼기면 원동리 학동마을, 1986. 10. 22, 지춘상·나승만 조사

앞소리 : 황수성 남·65, 김종석 남·61

맞는소리 : 노일원 남·63, 서상원 남·57

※ 이 '두벌매기소리'는 두패로 나누어 서로 주고 받는 교환창으로 노래한다.

[황수성·김종석] 오동동추야 달은밝고
 임의생각 절로나난다

[노일원·서상원] 성제나성제⁽¹⁾ 물을타고⁽²⁾
 성제고개 넘어를가네

[황수성·김종석] 비묻어온다 비묻어온다
 곡성산천 비묻어오누나

(1) '형제나 형제'의 全南道方言

(2) 말을 타고

[노일원·서상원] 남삼대는⁽³⁾ 휘늘어졌고
골골삼대 휘늘어졌네

[황수성·김종석] 청사초롱 불밝혀라
일곡임의방에 놀로를가세

[노일원·서상원] 나도나가네 나도나가네
임을따라 나도나가네

[황수성·김종석] 뽕따로가세 뽕따로가세
뒷동산천 뽕따로가세

[노일원·서상원] 잉어가노네 잉어가노네
창포밭에 잉어가노네

[황수성·김종석] 임도나보고 뽕도나따고
겸사겸사 뽕따로가세

[노일원·서상원] 고만저만 파향국허세
북도칠성 횡돌아졌네⁽⁴⁾

(3) 삼(麻)대

(4) 횡돌아 넘어 갔다는 뜻

(3) 군벌매는 소리

군벌매는 소리(1. 45) ㉠부분의 가사만 바뀐다

(두패로 나누어 교환창으로 부른다)

〈합창〉

지춘상 채집

박용재 채보

A

잘도나허 — 네 — — — — — 잘도나허 — 네 — — — — —

우 — 리 농 — 군 잘 - 도 오 - 나허 — 네 — — — — —

B

하 이 고 호 — — — — — 답 — 답 — — — — — 설 음 이 야

삼기면 원등리 학동마을, 1986. 10. 22, 지춘상·나승만 조사

앞소리: 황수성 남·65, 김종석 남·61

맞는소리: 노일원 남·63, 서상원 남·57

※ 이 '군벌매는 소리'는 두패로 나누어 주고받는 교환창으로 부른다.

[황수성·김종석] 나도나가네 나도나가네
 입을따라 나도나가네
 하이고답답 설음이야

[노일원·서상원] 잘도나허네 잘도나허네
 우리농군 잘도나허네
 하이고답답 설음이야

[황수성·김종석] 서산넘어 소첩⁽¹⁾ 을 두고
 밤질걸질⁽²⁾ 황강허네⁽³⁾
 하이고답답 설음이야

(1) 小妾

(2) 밤길 걸어가는 길

(3) 全羅道方言 '완장'의 誤唱. 卽 미친다는 뜻

[노일원·서상원] 인제가면 언제나올래
오만날은 일러를주소
하이고답답 설음이야

[황수성·김종석] 형제나형님 물을타고
형제고개 넘어를간다
하이고답답 설음이야

[노일원·서상원] 비문어오네 비문어오네
곡성산천 비문어오네
하이고답답 설음이야

[황수성·김종석] 뽕따로가세 뽕따로가세
뒷동산천 뽕따로가세
하이고답답 설음이야

[노일원·서상원] 잉어가노네 잉어가노네
창포밭에 잉어가노네
하이고답답 설음이야

[황수성·김종석] 불떨어졌네 불떨어졌네
대명산천⁽⁴⁾ 불떨어졌다
하이고답답 설음이야

[노일원·서상원] 남삼대는 휘늘어지고
골골삼대 휘늘어졌네
하이고답답 설음이야

[황수성·김종석] 파향군허세 파향군허세
일락서산 해떨어졌다
하이고답답 설음이야

(4) 大明山川

(4) 늦은 방개타령

늦은 방개 타령(J. 50) [A]부분의 가사만 바꾼다

(두패로 나누어 교환창으로 부른다)

<합창>

지춘상 채집

박용재 채보

A

잘 — 도 오 나 허 — 네 — — — 잘 — 도 오 — 나 허 — 세 해

우 리 - 나 노 오후 옹 - 군 잘 — 도 오 - 나 허 — 네

B

해 해 — 해해해 — — — 오 - 리 휘 휘 - 해 해 - 야 - 노

바 — 해 — — — 바 - 해 방 - 개 노 오 — 자 해

삼기면 원등리 학동마을, 1986. 10. 22, 지춘상·나승만 조사

앞소리 : 노일원 남·63, 서상원 남·57

맞는소리 : 황수성 남·65, 김종석 남·61

※ 이 ‘늦은 방개타령’은 두패로 나누어 서로 주고받는 형식의 교환창으로 부른다.

[노일원·서상원] 나는가네 나도나가네

임을따라 나는가네

해~해~ 오~리~휘~

휘휘휘해~ 해~해야~노~

바~해~바~해~방~개노자 해~

[황수성·김종석] 잘도나허네 잘도나허네
우리나농군 잘도나허네 농군
헤~헤~ 오~리~휘~
휘휘휘~헤~ 헤~헤헤야~노~
바해~바~해 방~개노자 헤~

[노일원·서상원] 인자나가면⁽¹⁾ 언제나올래
오만은날을⁽²⁾ 일러를주소
헤~헤~ 오~리~휘~
휘휘휘~헤~ 헤~헤헤야~노~
바~해~바~해 방~개노자 헤~

[황수성·김종석] 오동추야 달은밝고
임으나생각 절로나나네
헤~헤~ 오~리~휘~
휘휘휘~헤~ 헤~헤헤야 노~
바~해~바~해 방~개노자 헤~

[노일원·서상원] 불떨어졌네 불떨어졌네
대명천지 불떨어졌네
헤~헤~ 오~리~휘~
휘휘휘~헤~ 헤~헤헤야 노~
바~해~바~해 방~개노자 헤~

[황수성·김종석] 형제형제 물을타고
형제나고개 넘어를가세
헤~헤~ 오~리~휘~
휘휘휘~헤~ 헤~헤헤야 노~
바~해~바~해 방~개노자 헤~

(1) 이제 가면
(2) 온다는 날을

(5) 잣은 방개타령

잣은 방개타령 (J 는 120) □부분의 가사만 바꾼다.

(두패로 나누어 교환창으로 부른다)

<합창>

지춘상 채집

박용재 채보

잉 어 가 노 - 네 에 에 잉 어 허 가 는 다 -
 창 - 포 - 오 발 에 서 잉 어 가 는 다 -
 허 바 - 애 해 - 이 해 야 - 노
 바 애 바 - 애 - 방 - 개 노 자 허 어

삼기면 원동리 학동마을, 1986. 10. 22, 지춘상·나승만 조사

앞소리 : 황수성 남·65, 김종석 남·61

맞는소리 : 노일원 남·63, 서상원 남·57

※ 이 '잣은방개타령'은 두패로 나누어 서로 주고받는 교환창으로 부른다.

[황수성·김종석] 진삼대는 휘늘어지고

골골이삼대나 춤을벌렁벌렁춘다해~해~

해~노 바~해 방~개노자 해~에

[노일원·서상원] 잘도나허네 잘도나허네

우리나농군들 잘도나헌다 해~바애~

해~해야~노 바애 방~개로노자 해~에

[황수성·김종석] 오동추야⁽¹⁾ 달은밝고
임으나⁽²⁾ 생각이 절로난다 헤~바헤~
헤~헤야~노 바헤 방~개노자 헤~에

[노일원·서상원] 잘도나허네 잘도나허네
우리형제분들 잘도나허다 헤~바애
헤~헤야~노 바애~방개노자 헤~에

[황수성·김종석] 일락에서산⁽³⁾ 해떨어지고
월출동정에⁽⁴⁾ 달솟아온다 헤~바애~
헤~헤헤야~노 바애 방~개노자 헤~에

[노일원·서상원] 잉어가노네 잉어가노다 논다
창포밭에서 잉어가논다 헤~바애
헤~헤헤야~노 바~애 방개노자 허~어

[황수성·김종석] 불떨어졌네 불떨어졌네
대명에산천에⁽⁵⁾ 불떨어졌다 헤~바~에
헤~헤헤야~노 바애~방개노자 헤~에

[노일원·서상원] 파향국허세⁽⁶⁾ 파향국허세
일락서산에 해떨어졌다 헤~바~에
헤~헤헤야 노~바애~방개노자 헤~에

(1) 梧桐秋夜. 오동나무잎이 떨어지는 가을밤에
(2) 임의. 임만의
(3) 日落에 西山. 日落西山
(4) 月出東頂
(5) 大明山川. 밝은 대낮에의 뜻
(6) 끝마치세의 뜻

3. 장원질 노래(산아지 타령)

산아지타령 중머리 (♩ 120)
 <메기는소리>

지춘상 채집
 박용재 채보

청 사 초롱 — 으 - 불 - 밝 - 히 - 들 고

님 으 - 방으 로 놀 리 가 세

<받는소리>
 에 야 아 - 뒤 야 어 히 - 히 이 헤 야

에 야 아 뒤 - 여 — 라 산 아 지로 — 구 나

<맥>
 그 만 — — — 저 만 — — — 파 - 행 - 군 - 히 고

집 이 — 로 - 들 어 가 막 걸 리를 — — — 마 시 세

삼기면 원동리 학동마을, 1986. 10. 22, 지춘상·나승만 조사

앞소리 : 황수성 남·65

뒷소리 : 김종석 남·61, 노일원 남·63, 서상원 남·57

※ 이 마을에서는 '장원질 노래'가 따로 없고 다른 지방에서 논맬때 부르는 노래인 '산아지타령'을 부른다고 한다.

[황수성] 헤~야 허허허이~에야
허허뒤어~ 산아지로그나
에~헤~헤이 에헤헤 헤~야
에~야 뒤~어~ 산아지로그나

잘도나허네 잘도허네
우리나농꾼 잘도허네
에~헤~헤이 헤~헤 허허이 헤~야
에~야 뒤~어라 산아지로그나

호~호호호호이~에~야
호~호 뒤~어~ 산아지로그나
에~에헤 헤이야
에~야 뒤~어라 산아지로그나

오동추야 달이밝고
임의생각 절로난다
에~헤~헤이 에~헤 허이해야
에~야 뒤~어라 산아지로그나

일락서산에 해떨어지고
월출동정에 달돌아온다
에~헤~헤이 에~허허이 에~야
에~야 뒤~어라 산아지로그나

허~호~호호이 에~야
호~호 뒤~여 산아지로그나
에~어허허이 에~야
어~허 뒤~어라 산아지로그나

저달은뚝떠서 대장이되고
견우직너는 구분⁽¹⁾ 이르고나
에~헤~헤이 에~허허이 에~야
에~야 뒤~어라 산아지르고나

청사초롱에 불밝혀들고
임의방으로 놀리가세
에~야 뒤~야 에~헤 허이 헤~야
에~야 뒤~어라 산아지르고나

구만저만⁽²⁾ 파형국허고
집이로들어가 막걸리틀마시세
에~야 뒤~야 에~헤 허이 헤~야
에~야 뒤~어라 산아지르고나

(1) 後軍의 謔唱

(2) 그만 저만

谷城의 傳來俗謠

(Ⅱ 篇)

길쌈노래

곡성은 산간지대로 논이 적고 산이 많아 밭곡식에 많이 의존하고 옛날에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수익성이 높은 삼(麻)을 심어 이것으로 베를 짜 지아비와 자녀들의 의복을 해결해 왔고, 이 베를 시장에 팔아 모자라는 식량을 구입하고 생활비를 충당했기에 길쌈이 성행하였고, 특히 석곡의 돌실나이는 궁중의 진상품 하나로 오늘날에는 죽산리 김점순 할머니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길쌈노래는 길쌈을 하면서 무료함을 달래고 피로를 덜어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해 불리어진 것인데 그 내용은 일정치 않으나 삶의 고달픔과 시집살이에서 오는 괴로움 등을 아무 가식없이 소박하게 나타내준다.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사설은 부른사람이 더 보태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불려져 왔다.

여기에 소개된 노래는 삼베짜기 공동작업과정 순서대로 삼짜기, 삼삼기, 물래노래, 실것올리기, 베날기, 베메기, 베짜기등 전 작업과정을 통해 삼(麻)에서부터 베(布)가 짜여져 나올때 까지의 8장면을 노래한 것이다.

이 노래는 이조(李朝)중기 이후 것으로 겨우 구전으로 전승해 오던 것을 수집 정리하여 편자(김학근)가 1975년 10월 26일 제7회 남도문화재에 석곡면 죽산리 김점순(중요 무형문화재)씨를 비롯한 40~50대 부인들 16명이 출연하여 관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 종합최고상을 수상한 노래이다.

길쌈노래 (1)

1. 삼째기 노래

삼을 짜세 삼을 짜세 하루에도 천백번을
손톱으로 삼을 짜서 고운배나 잘 짜보세
한올 두올 짜다보니 하루 해도 다 되었네
선녀같은 어여쁜 손 머슴 손이 다 되었네

2. 삼삼는 노래

남산선수 관솔가지 앞마당에 피어 놓고
곡성 석곡 진삼가리 어서 삼고 바삐 삼세
봉에 눈을 부릅뜨고 곰배 팔을 바삐 놀려
송곳니를 앙물고 어서 삼고 바삐 삼세
올라간다 올라간다 땅떠리가 올라간다
거는것이 장원인가 삼는것이 장원이제

3. 물 래 노래

물래야 자새야 어리빙빙 돌아라
열들이 우리 군사는 잘도나 하네
물래살은 팔형제요 건구지는 세매답
물래태를 들은 양은 북두칠성 들으는 듯
물래야 자새야 어리빙빙 돌아라
열들이 우리 군사는 잘도나 하네
괴머리 누엇는 양은 산신선 노신선
쇠좋은 가락소리 반짐실고 노는 양은
물래야 자새야 어리빙빙 돌아라

열둘이 우리군사는 잘도나 하네
 물래야 자새야 어리빙빙 돌아라
 이웃집 귀동자 밤이슬 맞는다
 물래야 자새야 어리빙빙 돌아라
 열둘이 우리군사는 잘도나 하네
 남의집 며느리는 재미가 저서 흔들고
 칠팔월 배틀배는 뱃틀베틀 흔드네
 물래야 자새야 어리빙빙 돌아라
 열둘이 우리 군사는 잘도나 하네
 춘삼월 밝은 달빛에 떼구름 노는듯
 물래야 자새야 어리빙빙 돌아라
 물래야 자새야 어리빙빙 돌아라
 열둘이 우리군사는 잘도나 하네
 객사뒤에 비자나무는 아전에 손짓 흔들고
 장광안에 봉숭아는 봉지봉지 흔드네
 물래야 자새야 어리빙빙 돌아라
 열둘이 우리군사는 잘도나 하네
 객사뒤에 비자나무는 아전에 손 흔들고
 장광안에 봉숭아는 봉지봉지 흔드네
 물래야 자새야 어리빙빙 돌아라
 열둘이 우리군사는 잘도나 하네
 물래야 자새야 어리빙빙 돌아라
 좌우설동 궁글동은 외로틀어 올리도다
 물래야 자새야 어리빙빙 돌아라
 열둘이 우리군사는 잘도나 하네
 물기상에 수양버들은 가지가지 뻗어서
 문살을 잡고도 흔드네

물래야 자새야 어리빙빙 돌아라
열들이 우리군사는 잘도나 하네
젓가상에 짜구때나무는 바람을 잡고 흔들고
우리집 아가씨는 싱글벙글 웃네
칠팔월 쭈시읏은 철을 따라 흔들고
우리집 시어머니는 철도 모르고 혼드네

4. 실것 올린 노래

돌아라 돌아라 돌곳아 돌아라
찌긋찌긋 돌아라 어서 빙빙 돌아라
한번 돌면 열두자 열번 돌면 한가닥
돌돌돌돌 잘도 돈다

5. 실것 내리는 노래

윗죽 빗죽 도는 돌곳
어서 바빠 돌아가소
오늘밤이 다되어도 서재도령 아니오네
진사대과 못할라면
밤서겔랑 그만 두소

6. 베날기 노래

한줄 두줄 날아보세
열말뚝에 걸어보세
바람아 돌풍아 부지를 마라
어서 날고 님품에 들세

7. 베 날때 노래

한합 두합 매어보세. 풀도주고 손도 주고
 내딸 같이 빗어보세. 한합 매면 배부르고
 스무합 돌면 한필일세

8. 베 틀 노래

세상에는 할일없이 청삼을 찌어내어
 뱃들다리는 네다리오 가리싸장 스와 놓고
 앞을개는 도리놓고 나삼을 밟아차고
 부테허리 두른 양은 만첩산중 높은 봉에
 허리 안개 두르는 듯. 북이라고 나는 양은
 칠년 대한 가무름에 물만 먹은 외기러기
 백운강에 넘어드네 보디집 차는 양은
 백립같이 절어내어 은자돛자 재어내어
 모질개 물 주는 양은 칠팔월 세우강산 부리는듯
 잉앗대는 삼형제요 늘립대는 홀아비라
 비거리 노는 양은 이나라 장부 지나라 장부
 만군사를 휘어들며 용두머리 우는 양은
 첨천에 외기러기 빗부르는 소리로세
 운절없고 도투머리 정절보고 뛰넘어 가네

베들노래 (1)

세상에는 할일없어 청삼을 깨여내어
베들 다리는 네다리요
가리씨장 쏘아 놓고
안질개는 도리놓고 나삼을
밟아차고 부테허리 두른 양은
만첩산중 높은 봉에 허리안개 두른듯
복이라고 나는양은 칠연대한
가무름에 물만먹는 외기리기
백운강에 넘어드네
보드집치는 양은 백립가치
저러내어 은자 늦자 재여내어
모질애물 주는 양은 칠팔월 세우강산 뿌리는 듯
잉앗대는 삼형제요
눌림대는 홀아비라
베거리 노는 양은 이나라 장부 저나라 장부
만군사 휘여들며
용두머리 우는 양은 청산에 외기리기
벗부르는 소리로세
은저럽고 도루마리
정저럽고 도도루머리
밀침대로 뒤넘어 가네
뱃대 양대 듣는소리
살대 튀는 소리로세
큰아큰 줄레 목을 목겨
지나진 꼬지신

〈석곡면 죽산리·김점순〉

베들노래 (2)

베틀이라 두다리 앉지개를 도대놓고
 그 위에다 앉으면
 부태라 찬은양은 몰코라 차는양은
 처자 허리 감은듯이
 북이라 드나 신양은
 내허리 산상에 별이 자자 한듯이
 보디집이라 치는양은 서리 안개 뿌린듯이
 챗밭이라 굵은 양은 무지개라 그린듯이
 임앗대라 삼형제는 육도 십리 사하 십리
 동지패는 날아든다
 고대는 늑고대는 저혼자 날뛰는구나
 저무나 새나 배걸이는 내력없이 바쁘구나
 찌글찌글 용두머리 엉절궁 도투머리 덩절궁 도투머리
 뱃대 허리대 얼지소리 옥방깨진듯이
 저무나 새나 꼬식시는 은끈에다 목을 달고
 칠년대한 가물음에 물만 묻혀 덜었다네

〈오곡면 오지리1구·이순남〉

베들노래 (3)

오늘날도 하심심하야
 베틀이나 놓아모세
 하늘에다 배틀놓아
 구름잡아서 잉애걸고
 잉애타는 삼형제요
 눈섭대는 홀애비대라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아가씨 다리는 두다리라
 밤에 짠것은 월광단ियो
 낮에 짠것은 일광단이라

〈고달면 백곡리2구·오여식〉

베들노래 (4)

밤에 짜는 베는 야광단이요
낮에 짜는 베는 일광단이요
얼정질정 벅짜는 소리
길가는 도령 길뭇가네

〈곡성을 학정리2구·오영애〉

베들노래 (5)

베들다리는 사형제라 잉애대는 삼형제라
누굴때는 잉애밖에 제시놓고
머리채는 우태밖에 제가놓고
물코는 잘잘 베짜는 소리
도롱수제 질을뭇가 보디집 소리에
큰 애기 실멍 저절로 난다

〈오곡면 덕산리·조정순〉

베들노래 (6)

야박수 건조개 순사실로 가는배
 일대 문장에 소동과 제표강에
 띄웠더니 은자룽에 낙수대
 왕래 화전에 기려사

저 건너라 높은봉에
 모시베 짜는 저 처녀야
 너의 부모는 어디가고
 큰 북 넣기만 힘을 쓰나
 우리 어머니 불러거든
 통천 내래 배를 타고
 세계 난양 구경 가소

〈겸면 현정리 460·고순남〉

베들노래 (7)

찌글 탕탕 도투마리
 찌그렁 멩덩 일어난다
 칠팔월이 돌아오면 잉엇대 삼형제 구혼한다
 물코 잘랑 짜는 양은 질가는 도령 질못간다
 배잘짠다 배잘짠다 우리 마누라
 배잘짠다 멜구다래나 먹고 짜소
 지랄헌다 지랄헌다 넘어 들으면
 어찌할고 수건 수건 반포수건
 수건기가 떨어지면 이모정도 떨어진다

〈곡성을 구원리1구·황소남〉

베들노래 (8)

찌글 탕탕 도타마리 찌글 명당 일어났다
잉여대 삼형제 노는 양은 7, 8월이 돌아오면
잉여대 삼형제 굶이있다
지랄 헨다 지랄 헨다
남이 알면 어쩔라고
수건 수건 반포수건
수건귀가 떨어지면
이옥에 정도 떨어진다

〈곡성을 학정리·김연심〉

베들노래 (9)

세상에 할짓없어 금자 한필 짜라하고 광마루에 베들놓아
가리 시장 싸 박아 앓을깨들 돌아앉고
도토말이 감은베를 울코레다 감아짜고
외로굽는 채발을
동에 세상질렸구나
그 위에 잉여대는 삼형제라 그위에다 비그리는 백마를 헤쳐 났다
쿵절통 도토말이 정절통 뒤엎는다
용두머리 우는머리 몰닥나구 우는소리 꼬심신을 꼬쉬양은
은끈으로 목을 졸라 지도 방에 꼬식는다
금자 한필 짜갓고 재재로 재안에다 한고비를 끊었구나

〈오곡면 묘천·김옥자〉

베틀노래 (10)

월정에 놀던 선녀 성산에 득자하고
 할일이 전혀 없어 금산아 짜고 보자
 옥난간에 베틀 놓아 금사나 짜고 보자
 가로물고 짜는 양은 그위에 체때나니
 놀락날락 북을 난은 매목 춘풍 삼을적에
 한경같은 피꼬리는 시리춤에 우왕난다
 울울이 서는 양은 울락날락 보다 짙은
 백옥 산성 전옥전 시소리로다
 늘긋대 노는 양은 돌강 킨잇하네
 엇자롱에 낙수된다
 병울에 삼형제는 서나맹자 과노 맹자
 백동 칠구에다 여우는듯 사림대
 다연진은 한강수라 깊은 물에
 청룡황룡 뒤높은듯 그위에 원산일라는
 중천에 뜨는 외기러기 짝을 잃고 짝찾은
 그 아래 베틀다
 9, 10월 단풍에 연바람처럼 푹 떨어진다
 그아래 조식시는 인곤에다 목을매고
 지도 향으로 실실 기어 땡긴다

〈오곡면 승범리·박복녀〉

베들노래 (11)

오늘은 하도 심심하여 베틀이나 놓아보자
낮에 짤 배는 미광단이요
밤에 짤 배는 야광단이요
미광단 야광단 합해서
우리님 와이실산나 지어 보자
엉그렁 정거렁 배를 짠다
이베를 다짜면 어디서 놀께

〈삼기면 행정리·김조약〉

물레노래 (1)

물레연장 개연장
장설대 궁글동
괴용살에가 걸렸네
물레살은 팔형제
소리난다 전가락
물레야 자세야 어서나 뱅뱅돌아라
남의집 귀동자 밤이슬 맞는다

〈고달면 백곡리·오여식〉

물레노래 (2)

물레야 자세야 어빙빙 돌아라
 남의집 귀동자 밤이슬 맞는다
 남의집 머느리는 재미가 저서 흔들은다
 칠팔월 베틀 배는 (곡식) 베틀 베틀 흔들은다
 객사뒤에 비자 나무는
 아전에 손질을 흔들은다
 장광안에 봉숭아는 봉지 봉지 흔들은다
 물가산에 수양버들은 가지 가지
 뻗어가서 몰살은 잡고도 흔들은다
 잣가상에 짜구대 나무는
 바람을 잡고도 흔들은다

〈흥아기 할머니〉

물레노래 (3)

자우설주 궁굴동은 선위아로 네도봉은
 연유아라 돌른언덕
 물레살 팔형제 네영매 제갈공은
 나레봉에 돌던 언덕
 물레에 건구지는 새마담을 땀아다 들어
 파리거는 지상이네 칠열상공네 상공
 물레에 두린테는 시름잡아 돌른언덕
 웅케 웅케 게머리는 사심사심 노사심
 도를 잃고 앓거는덕
 새젖다 가락소리 반짐신고 노는 양은
 명주빠는 양은
 선에 무지개를 동에다 지른듯이

〈오곡면 오지리·조순임〉

물레노래 (4)

물레야 자세야
어서 빙빙 돌아라
너무집 귀동자
밤이슬 맞는다

※ 女子는 물고기 를 빨리하고 男女가 만나는 옛사람의 자취를 노래한 글
男子는 자 세

〈곡성읍 읍내리1구·선만호〉

물레노래 (5)

개의 앓어 물레를 하는 양은
서는이 이평풍을 두르는 듯
물레살은 팔형제요 좌우설동 등글동은
외이틀어 오리로다
피버리 앓은 양은 산신선 노신선
골자킬려고 누었다
쇠좋은 가락소리 반짐실고 노는 양은
춘삼을 밝은 달빛에 떼구름 노는 듯
물레야 자세야 어리빙빙 돌아라
이웃집 귀동자 밤이슬 맞는다

〈석곡면 죽산리229·김점순〉

물레노래 (6)

물레살은 팔형제라
경구세는 거레세라
좌우설주 궁굴동은 요내손에 매었구나
쇠가락에 쇠거리는 남원산성 올려거나
젊은신네 물레소리는 이장이나 저장이나
내후장 오용 오용 오용 젊은신세 물레소리
남원의 물레소리는 이장이나 저장이나 내후장

〈남원군 금지면·하금술〉

물레노래 (7)

물레 잦은 팔인경이
알쌈 잘쌈 병이 들어
귀머리가 접을 형께
참기름 약이란다

〈삼기면 행정리·김조악〉

물레노래 (8)

물레살 팔형제는 5구방에 둘러 놓고
자주설제 궁글때는 비를 방에 둘러놓고
앵게머리 쌍게머리 춘삼월 붉은 달에
방짚 싣고 노는 양은 장에 풍으르다

〈오곡면 오지리3구·김순자〉

물레노래 (9)

물레야 물레야 뱅뱅 돌아가라
어서 잣고 오란대는 밤에 가고
동래 술집은 낮에 가세

〈곡성읍 읍내리6구·홍순복〉

물레노래 (10)

순창읍내 순금애기
파랑부채를 손에 들고
쌍긋쌍긋 웃는 양은
오여산 꽃이로세

〈삼기면 청계리·정미애〉

물레노래 (11)

물레야 자세야 애뽕뽕 돌아라
우리가 여그를 왔다 그저를 갈손가
동애나 도동실 놀다가 가세

〈입면 참정리·양옥례〉

삼삼기노래

올라간다 올라간다 땅떠리가 올라간다
수원댐양(담양) 진진삼에 땅떠리 올라간다

〈석곡면 2구·김소녀〉

들 소 리

제목 : 모심는 노래, 호미질 노래, 장계 타령, 논매는 소리

1. 일 시 : 1999. 12. 4 10 : 00
2. 장 소 : 겸면 칠봉리
3. 대 상 : 심형식(76세)
4. 조사자 : 김학근, 조준원, 심재현

[모심는 노래]

이 앙 가 (1)

여~어~어 여~어~여어루 상~사~디~어~
 여보셔요~ 농군님들 말들어 보아라 아~아 농부야~
 말들어보셔 ~어~이 어~여~어 여~어 상~사~디~어~
 어울러보세~ 어~이 노래~한자리 불러 보어서
 오동~동 초야~에 ~달도나 밝고 ~이몸이 생각이 절로 난다
 여 어~어~이 어어루 상~사~기~어~
 여~보~셔~요 농군~들 이~내 말을 들어 보셔
 어~허~ ~말들어 보~서 어~허~허~루
 상~사~디~어

[호미질 노래]

이 앙 가 (2)

어울러~어 보~오~세 에~이
 노래~한자리~불~러~보~세~ 오동 동~초야에~
 ~어허어 달~밝~은 ~홍~데~에~이
 이몸~은~생각~이 난~다

[장계 타령]

이 앙 가 (3)

야~호~호~호~야호~야호~야호~호~호호게 구름 이구나
 ~오동동 초야에~ 달밝은 늙은 이몸 생각이 이~절로~난다
 야~호~호 호호게 구름이 구나
 ~모내기쌈은 구름만 저어도 좋다~야이~야
 일락은 서산에 해너머~간~다
 우리집 기뚝은 연기만 난다
 야호~호~호 야호 야호~호 호호게 구름이구나

[논매는 소리]

이 앙 가 (4)

~어울~러~보~세~에~ 한~ 어울러~보~세~
 오동~동~초야~어 달~맞~은 보도
 이몸~은 쟁기질을~절~로~ ~나~ 간다
 청~산~처~럼~ 돌~같이~늙어 이~것~이
 내 구절~로 난다~아
 아호 야~호~호~ 야호 호~호 허헛게 구름이구나
 ~못~다은~내밭을 다매고~난~게~
 골목~골~목에 연~가~가 난다
 아호~아~호~호 아호~아호 허헛게 구름~이구나
 오동동 초야 달~도~나 밝고 ~이~몸~생각이 절~로도 난다
 야호~호 ~야~호 ~호~호~야~호 허헛게로구나

이 앙 가 (5)

신룡씨 따분에야
천수만세 전했구나
억조창생 만민들이
농업을 심을 써서
교인 일중 위시하고
상백종 하야
시위 위藥하니
구민 水火지 지중이라

〈죽곡 당동·김오중〉

이 앙 가 (6)

어제오신 새아짐씨 노래한자리 불으시오
부르라면 부르제라 생겨라면 생기제라
크다 크다 원산뱀이 질도 질다(길다) 장애뱀이
우리 엄마는 나를 나서 한간쏘
대동강에다가 나를 뛰우렸던가

〈죽곡면 유봉리1구·김순임〉

[모내기 노래]

이 양 가 (7)

세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어라 농부 말들어 반달만큼 남았구나

〈곡성읍 읍내리·조신녀〉

[모내기 노래]

이 양 가 (8)

세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어라 농부 말들어 반달만큼 남았구나
어허라 뒤어 상사~뒤~허
어서라 심고 님품에 들세~

〈곡성읍·김갑순〉

[논매고 들어오면서]

이 양 가 (9)

(소타고 농기세우고 사다리메고)

앞소리 : 저달은 임께의 나두다 보자

뒷소리 : 에야 뒤야 나허허에이야

에~허지고 산이로구나(사니니로구나)

〈석곡 능파리·손경지〉

[논매기 할때]

이 양 가 (10)

잘도 허네 잘도 현다

우리 들소리 잘도 현현다

헤어오요 헤에히히이 나에요

나의 반개로다

〈석곡면 능파리·손일섭〉

[갈비봉 노래]

이 양 가 (11)

(석곡지역)

저건네 갈비봉에 비가 담썩 묻어 들어온다

우장 샷갓 숙여써라 눈에 지심을 멜꺼나

〈석곡면 능파리·손일섭〉

[논매기 노래]

이 양 가 (12)

여열용상 사도야 요보소 농부야

어둠침침한게 밤아닌가

우장을 두르고 눈에 지심을 멜꺼나

여열루우상사도야

농사를 지여선 영봉사합시다

여여루우상사도야

〈오곡면 오시리5구·김판동〉

[호미질 노래]

이 양 가 (13)

선소리 : 바람 바람 불고 비올줄 알면 어떤 처자
빨래하러 갈고 ~애 해~

뒷소리 : 애라 애라 사허, 애라 애라 사허, 애라 애라 사허
날오라네 날오라네 산골처녀 날오라네

뒷소리 : ~

선소리 : 인제가면 언제와요 오는 날을 일러주소

뒷소리 : ~

선소리 : 갈적에는 개가 짓고 울적에는 닭이나 우네

뒷소리 : ~

선소리 : 형제 형제 물(말)을 타고 형제고개 넘어가네

뒷소리 : ~

선소리 : 오동추야 달을 밝고 어떤처자 빨래질 갖고

뒷소리 : ~

선소리 :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 동녘 달 솟아오네

뒷소리 : ~

아이고 답답 서러움이야~

〈입면 창정리·강상권〉

[모내기 노래]

이 양 가 (14)

이들판 저들판에 모내기가 한창일세

〈후렴〉 어털털 상사뒤여 얼지구 상사뒤어

상사소리 높이어라 정성으로 심어가세

앞집 뒷집 고기국이 부굴부굴

〈후렴〉

한쪽심어 생산이요 두쪽심어 증산일세

〈후렴〉

한쪽심어 비행기요 두쪽심어 멸공일세

〈후렴〉

앞논 뒷논에 두력물이 넘실넘실

〈후렴〉

앞집 뒷집 멍멍이도 멍멍멍

〈후렴〉

앞집 뒷집 과실도 주렁주렁

〈후렴〉

남쪽 언덕 황소도 우메우메

〈후렴〉

서당집 장닭도 꼬댁꼬댁

〈후렴〉

발 노래

발 노래 (1)

불과 같이 더운날에

 피와 같이 짓는 발을

한골 메고 두골 맨게 전보왔네

한손으로 받아갖고 두손으로 펴보고

우리 어머님 죽었다고 전보왔네

비내 빼서 품에 넣고 머리 풀어 발쌍하고

신발 벗어 손에 들고 한모퉁

돌아가니 곡소리가 진동하네

두모퉁 돌아가니 생여 소리 진동하네

세모퉁이 돌아가서 대문밖에 들어서서

오라버님 성나서

 에라 요년

지리 멀어 못오걸랑 천리 차나 타고 오지

물이 깊어 못오걸랑 천리말이나 타고 오지

 너의 어머님 불라면 엇그저께나 오지 대문을 때려

닫고 들어 가네 오라버님 오라버님

대문좀 열어 주셔요 쌀 한되만 더재졌으면

 오라버님도 먹고 나도 먹고 구정물이 나도 오라버님의

소주제 내 소주요 야속하고 야속하다

가던길을 돌아서서 되돌아 오네

〈오곡면 전통 49세·이순남〉

발 노래 (2)

사래질고 장찬밭에
못다멜밭 다메고 갈라다가
금붕채를 잃고가니
골목골목에 연기가 나네
은가락지 찌던 손에
호미자루가 웬말이나

〈괴소리·정원임〉

발 노래 (3)

못다 멜밭 다메고 감선
은가락지 잃고가네

〈석곡리2구·전수덕〉

발 노래 (4)

못다멜 밭 메고 가다
금붕채를 잃고 나가네
금붕채는 내가 찾아주께
요내 품에 잠들고 가소

〈곡성읍 읍내리6구·홍순복〉

밭 노래 (5)

사래질고 장찬밭에
목화따는 저 처자야
저 산이름이 무엇이드냐
여기서 나서 여기서 커도
저 산이름을 몰라더니
양태 뜯어 부모 공경허사
저 산이름을 몰랐더니
옛날 옛적 노인네들이
허시는 말씀이
제주 한락산이라고 허십도다

〈석곡리2구·김소녀〉

밭 노래 (6)

저건네라 사래질고 광찬밭에
삼십골을 매고 낭계
되었구나 되었구나 점심때가 되었구나
집이라고 들어올께 시아버지 성나 섬섬
어느 새끼 점심때가 되었느냐
시어머니 성나섬섬 어느새끼 점심때가 되었느냐
정제라고 들어가서 살펴보니 콩죽썰서 옥국뜨고
팥죽 썰서 옥국떠서 시어머니 하신 말씀
어서 가서 그놈 먹고가서 밭이나 매고 오너라

〈오곡면 오지리2구·조연화〉

발 노래 (7)

멧과 같이 지신 발을
못다멜발 다멜라고
금붕채 잃었구나

※ 나이 어려 시집와서 시집살이에 시달린 노래

〈곡성읍·이경호祖母〉

발 노래 (8)

못다 멜 발
다 멜라다
얻었던 인심
잃고 가네

〈곡성읍 읍내리3구·복임祖母〉

발 노래 (9)

사래질고 장찬발에
모다멜발 다메고 갈라다가
금붕채를 잃고 가니
골목에 연기가 나네
은가락지 찌던 손에
호미자루가 웬말이나

〈괴소리·정원임〉

발 노래 (10)

사래질고 광찬발을
언제나 다 메고
임품에 들께

〈곡성읍 구원리1구·황소남〉

발 노래 (11)

못다멜멜발 다멜라다 금봉채를 잃고 나가네
곤봉채는 내당에 줌제 요내품안에 잠자고 가소
중에 잠잠 걸었던 자리 요내춤(치마)에다 걸어나보세
네가 돌아갈거나 가걸랑은 가소마는
정일랑은 두고 가소 가면 가고 말면 말았지
네잠놈 따라서 내가 돌아 갈소냐

〈곡성읍 학정리2구·오영애〉

발 노래 (12)

못다 멜발 다메고 갈라다 금봉채를 일코 가네
여기를 왔다 그저를 갈소냐 동애 도동실 놀다를 가세
놀다가 놀다가 가세 여그를 왔다 그저를 갈소냐
동애나 도동실 놀다가 가세
이팔청춘 젊은 나이에 그저를 갈께
동애나 도동실 놀라를 가세

〈입면 창정리·양옥례〉

사 랑 노 래

사 랑 (1)

사사심경 깊은 밤에 하늘은 높고 달밝은데
 독수공방 홀로누워 앉았으니 임이온가
 누웠으니 잠이온가 임도 잠도 아니오네
 베개 넘어 쏘과 되어 눈물장에 오리한쌍
 겨우 한쌍이 떠돌아오네
 대동강 되셨는데 눈물강에 내가 떴냐
 뜻이 달라 내가 떴네

〈삼기면 괴소리·김복남〉

[삼 삼으면서]

사 랑 (2)

뽕따러 가세 뽕따러 가세
 뽕도 따고 님도 보고 뽕이나 뽕따러 가세
 릴리 릴리리야 릴리 릴리리야
 릴리리 좋다 맞드렸다
 허허 혈말 없네 허허가 날짜
 달마중 가세 달마중 가세
 달도 불적 님도 불적 삼이나 달마중 가요
 릴리 릴리리야 릴리 릴리리야
 릴리가 좋다 맞드렸다 허허 혈말없네 허허가 날짜

〈삼기면 청계리·정미애〉

[삼 삼으면서]

사 랑 (3)

씨들 버들 봄배추는
밤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산골 큰애기 삼삼아 하고
날만 보면은 옆길을 친다
너는 잠נם 보고서 옆길을 치나
가을 바람에 옆길을 친다

〈학정리2구·황순옥〉

[임을 기다리며]

사 랑 (4)

두만강으로 길 떠시는 우리 입은
열흘에 십사일만 된다면
오신다더니 십사일이 넘어도 아니오고
계발퀴 까마귀만 날아 옵니다

〈곡성을 구원리2구 410·김순임〉

[남 아]

사 랑 (5)

님아 지는 햇빛 붉으니
갈길 빨리 건자
님아 눈썹 달빛 푸르니
갈길 좀더 가자
님아 새벽길 회미하니
갈길 마저 가자

〈오곡면 조사자·유정남〉

[남녀사랑]

사 랑 (6)

내 정은 청산이요
임의 정은 녹수로다
녹수야 흐르건만
청산이야 변할소나

녹수가 청산을 못잊어
휘~휘 곰돌아 네들거나

〈조사자·김학근〉

[삼 십으면서]

사 랑 (7)

뽕따러 가세
뽕따러 가세
뽕도 따고 님도 보고
뽕이나 뽕따러 가세
릴리 릴리리야 릴리 릴리리야
릴리리 좋다 맛 드렸나
허허 헐말 없네
허이가 날싸
달마중 가세 달마중 가세
달도 볼적 님도 볼적
달이나 달 마중가요
릴리 릴리리야 릴리 릴리리야
릴리리가 좋다 맛드렸다
허허 헐말 없네
허이가 날싸

〈삼기면 영청계리·정미애〉

사 랑 (8)

석탄 백탄 타는 데는 연기나 포송나구요
요네 가슴 타는데는 연기나 김도 아니나네
에헤야 에헤야 에야라 난다
지화자 좋다 네가 내간장 스리살살 녹인다

〈곡성·장옥선〉

사 랑 (9)

저마당 가운데 저 모닥불은
겉이 타야 남이 알지
속이 타니 남이 아나
저 모닥불은 내 속과 같이
속만 타는구나

〈곡성읍 학정리2구·문순동〉

사 랑 (10)

가근방 포수들아
기러기 길짐승
나래기 날짐승
온갖 짐승은 다 잡아도
홀로 울고 가는 저 기러기는
잡지를 말아라
간밤에나 입을 잃고
입을 찾아 천리가는 기러기다

〈석곡5구·김소녀〉

[신혼 시가 첫날]

사 랑 (11)

갈보 등섰 오는 양은
오봉실패 꽃엽인가
노래부를찌 말았으면
노래춤치 차고 온걸
벽장안에 걸어놓고
이짐이 혈어 그제 왔네
조그만은 우리님은
해당안에 꽃잎레라

〈정 원 입〉

사 랑 (12)

나주영산 쌀장사야
닭 울었다고 질뜨지 마소
그이 맥의 참이 맥(닭)이 아니라
인간의 흰맥(닭)이로세

〈삼기면 괴소리·김복남〉

사 랑 (13)

울넘어 담넘어
임심얻더니
임은 아니라고
호박잎 머구잎
애화자 지화자 노네

〈곡성을 확정2구·김하기〉

사 랑 (14)

임죽고 나살면 열너가 되나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나 죽자
열너 무덤은 숙대밭이 되고
잡년 무덤에는 화초가 만발됐네

〈곡성을 확정2구·김영희〉

사 랑 (15)

꼬방꼬방 장꼬방에 목단꽃을 숨어 놓고
님아님아 낭군님아 저꽃이 좋소 내가 좋소
네아무리 곱다헌덜 꽃에다가 비할소나
님아님아 서방님아 오늘밤에
잠잘때는 꽃을 안고 잠을 자오

〈오곡면 덕산리·조정순〉

사 랑 (16)

송백수야 푸른가지
높게 높게 그네 메고
오락가락 주천할 때
우리벗님은 어대가고
주천 시주를 모르시는가
에라 만세 어라 대신

〈곡성을 학정2구·김영희〉

[첫날밤 부른 노래]

사 랑 (17)

어제오신 저 신랑은 잠만자러 외셨는가
에리고도 고부님은 잠만자러 외셨는가
물명주라 화삼소매 밤만들고 나를 보소
비단에도 얼이 있고 공단에도 얼이 있는디
물로 물로 생긴명이 한숨없이 생길손가
닭아 닭아 울지마라 날아 날아 새지마라
각선서는 맥히 울고 순천날은 밝아오네

〈조사자·김학근〉

사 랑 (18)

심순애를 작별했던 이수일이는
 천천히 완봉하여 모란봉대여
 모란봉이 변하여 대동강된 물
 알세평상 순애마음 변할지 몰라요
 나인일소 일본으로 나가자 하오니
 저망에 어디가요
 푸른 하늘 밝은 달은 청춘에 솟고요
 수명산 달빛아래 우는 순애는
 이수일께 슬픈생각 간절통하네
 박절했던 심순애야 내말들어라
 나에 몸을 네집에다 의탁하여서
 장인장모 언덕으로 잔뼈굴짓이다
 오늘날 당에서는 이수일이가 금전이 부족하고
 평양부자인 김정배인 부인이 되어서
 고대공실 좋은 집에 높이 앉아서
 너에 남편 생각해라
 이수일이는 부모님 말씀대로 순정하여서
 김정배인 집으로 결혼했어요

〈오곡면 덕산·조정순〉

사 랑 (19)

여소에 당신맘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다지도 냉정하나요
당신에 그에 마음 변해가지고 그렇지요
몰라 그렇지요 듣기 싫어 아이고 냉정합니다
그다지도 냉정하신 당신인줄 내가 몰랐소

오이레 야속해진 내말어면서
어제도 오늘같이 변할 것이라
당신에 이해없는 한숨이라세
그렇지요 몰라요 그렇지면 몰라요 아 쓸데 없구나
조금도 재미없는 인상인줄 알았건만은
아면 그러겠지요
냐야 별수 없는 여자이니까 당신은 훌륭한 신사이니까
나같은 여자야 쓸데 없지요 쓸데 없지요
듣기싫어 응응응 울리면서 울리면서 싸운 싸움에
언제나 눈물우네 또 지는 눈물
싸우면 싸울수록 정이 든다네
용서하오 천만에 용서하오 천만에 아이구 부끄러워라
꿈에도 싸움이라 싸움시러 정이 든다네

〈오곡면 덕산·조정순〉

사 랑 (20)

옥등잔에 고무지름
가득부서 결사등이 걸어놓고
우리들이 누웠으니
저 불끝이 뉘 있는가
돌아간 東南風이
내 꺼줍세

〈곡성읍 읍내리2구·명순할머니〉

사 랑 (21)

노랑 노랑
범벅에 상투
언제나 키워서
내낭군 삼을까

〈곡성읍 학정리2구·오영애〉

사 랑 (22)

저 건너 초당은
무슨 여러 초당인가
문만 열었다 닫아도
향내가 난다

〈곡성을 확장2구·오영애〉

[물레질 하면서]

사 랑 (23)

과부가 청청과부 죽었구나
왓그장즈 묶어다가 전나무에 영그놓게
꽃이피고 회고리 꽃이 피었네
그 꽃 한쌍 꺾어다가 임의 책상위에 꽂아노니
나보고 방긋방긋 웃는구나
웃어도 이물러지지 왜 모르는가
사월이라 삼질날은 연자있는
푸릇푸릇하고 잔디잔디 속있나고
우리님은 어디가고
날 서러운지 왜 모르는가

〈고달면 목동리·이내구〉

사 랑 (24)

당신 당신 여보 당신 당신 여보

아이 여보 아이참

아이 이것봐요 당신 당신 여보

아이 여보 아이참

〈오곡면 덕산리·조정순〉

사 랑 (25)

우리덕 서방님 남평장 가겠네

저달이 떴다 지도록 노다가소

에허야~ 데헤야 사나지로곤나

〈삼기면 괴소리·강 혁〉

사 랑 (26)

진주단성 안사랑에
바둑두는 저 처남아
느그누님 앉았었느냐 누웠더냐
자형될라고 심던 보선 불을 걸어 신더냐

신던보선 불걸어 들고
보선 보고 입을 보니
입줄뜻이 전혀 없네
입아 입아 서방님아
그런다고 노하마소
노래끝이 그리가네

〈고달면 백곡2구·오여식〉

[부부애정]

사 랑 (27)

이산 저산 낭강뒤에 전라도 다 박을 심어
대마도 마대 뺏혀놓고 시누올케 악을 따다
떨어졌네 떨어졌네 남강물에 떨어졌네
거등보소 거등보소 우리 오빠 거등보네
곁에 있는 저의 동생 저만치 젓혀놓고
먼데 있는 저의 妻만 건지러 가는구나
나도 죽어 남자되어 부모형제 섬겨보세

〈곡성면 읍내리·황순옥〉

사 랑 (28)

칠성 바다에는
운선이 뜨고
우리님 술잔에는
옥동자가 떴네

〈곡성을 확정2구·김하기〉

사 랑 (29)

저마당 가운데
저 모닥불은
겉이 타야 남이 알지
속이 타니 남이 아냐
저 모닥불은
내속과 같이 속만 타는구나

〈곡성을 확정2구·김하기〉

사 랑 (30)

청산 초는
불밝혀라
잊었던 낭군
찾기도 낭감하네

〈곡성읍 학정2구·김하기〉

사 랑 (31)

자다가 들어도
우리님 구두 소리가
아그작 자그작
구두 소리가 난다

〈곡성읍 학정2구·김하기〉

사 랑 (32)

오동 복판에
저달을 신고
우리님 고향에
언제나 갈꺼나

〈조사자·김학근〉

사 랑 (33)

사꾸라 나무밑에
임을 세워놓고
꽃인지 임인지
분간을 못하겠네

〈조사자·김학근〉

[미우나 고우나]

사 랑 (34)

오는정 고을정아 가는 정도 곱다
공연히 양탈만 부리지 말고
그흔한 호박단 저고리 치마깁
넌즈시 한벌만 끊어 쥐 봐요
미우나 고우나 내 낭군 렴다
아무렴 그렇지 내 낭군 섬기다 마다

〈곡성을 학정리·김영심〉

[잠이 오네]

사 랑 (35)

잠사가소 잠사가소
전주장 떼거리놈들아
동전팔푼 엽전팔푼
여레담 앞에
요내잠 다 사가소
잠아잠아 오지마라
시어머니 눈에 난다
시어머니 눈에 나면
임의 눈에 아주 나요

〈석곡면 죽산리·김점순〉

사 랑 (36)

서리 많고 병든 잎은
바람없이 떨어지네
임이 끌어 타는 가슴은
병 아니들어도 철고리네

〈곡성읍 읍내리2구·명순할머니〉

사 랑 (37)

저 산넘어
소첩을 두고
밤길 전기가
내가 낭감하네

〈곡성읍 학정리2구·오영애〉

[짜사랑]

사 랑 (38)

죽었다네 죽었다네
뒷집 김도령이 죽었다네
머리를 풀자니 남이 알고
곡을 하자니 남이 알고
명년 3, 4월이 돌아오면
도실 엮바람 마포치마
노랑노랑 새삼베치마 입어나 줌세

〈곡성을 확정리2구·오영애〉

[꿈]

사 랑 (39)

꿈아 꿈아 무정한 꿈아
남몰래 사라지고 임은 없어졌네
도장을 찾아보니 허둥지둥 하네
허~어 이게 웬말인가
임은 남몰래 도망가 버리고
나혼자 울고 있네

※ 잠을 깨고나서 도장을 찾아보니 허무하고 허무해 이 노래를 불렀다 한다

〈곡성을 읍내리4구·이순자〉

[파랑새 입을 그리워]

사 랑 (40)

새야 새야 포롱새야
니머드로 나왔느냐
술잎 푸르길래 행화 춘절인가 나왔더니
저 건너 작주 가지가 나를 살짝 속인구나

한양 선중에 비친달은
우리 님을 오련만은
나는 무슨 죄가 있어
우리님을 못보는고

잎은 되어 청산이고 꽃은 되어 화산이고
우리골 정서방은
어느골에 쟁이 들어
날 온줄도 모르는고

새야 새야 두견새야
망구 풍년에 두견새야 너는 뭣이 서러워서
이내 문전에 울고가냐
나도 니와 같이 울지마는
넘이 비웃을까 싶어 못웃는다

〈삼기면 행정리·조장선〉

사 랑 (41)

저 건너라 안단밑에
저 건너라 안단밑에 수혈이 복성
꽃을 심어 저 나이 어린걸로
손 한번을 안뒀더니 지내가는 대별송이
날 사랑하고 정든 꽃을
송두리채 끈어갔네

〈오곡면 오지리2구·조연화〉

사 랑 (42)

진주땅 괄선비는 글씨 좋다 소문났네
우리땅 괄처자는 재간 좋다 소문났네
걸리드라 걸리드라 연삼년을 걸리드라
날이라고 받은것이 춘삼월 열 엿셋날

천 닷냥 돛을잡아 열두폭 치알에다
열 두폭 병풍에다 은잔놋잔 드나승선
사무관대 쓰고 한날 한시 만난님은
백년인들 잇을손가
천년인들 잇을손가

〈이 막 등〉

사 랑 (43)

어허 둥둥 내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인가
둥개 마치 꽃감인가
하구 영산 알밤인가 네모 반듯 뚜부인가
어둠 구멍에 수달피
맹기 끝에 준주씨 옷고름에는 미자리
어허 둥둥 내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인가

배나오네 배나오네 강남 경포대 배나오네
초록같은 물위에
제비같이 떠나오네
울어머니 나를 낳고 배를 타고 떠나오네

강남서 나온 명초 모심 모심 엮어서
은기 은기 몰라서
은장도 드는 칼로 아식 아식 썰어서
청도 화시 묻는 불에 옥조 가리로 모다드려
한 모금을 품으시니
노 맛이 이만하면

두모습 품으시니 살림맛이 이만하되
세모금을 품으시면
알상금지 왜 못하리

〈곡성을 동산리·김복수〉

사 랑 (44)

춘하 춘하 옥단 춘하 버들잎에 쉬단 춘하
어 하나를 불러다가 신닷질 담넙다가
한삼모시 세 자락창호 치다분을 짜었구나
총각아 총각아 유달은 총각아 그럼 말씀 맞으시고
7, 8월에 이네밭(목화밭)에 마네꽃 같다 짜다 하소
그러거던 정 안되면 아래역 해송밭에 해송 속다
짜다 허소
그러다가 정 안되면 밤중 밤중 야밤중에
신닷질 담을 스리살짝 넘어 오소
한산같은 한삼실로 본살 같이 꼬애 줌께
밤풍은 깊은 밤은 돛대치는 저 사공아 일대
운장 소동과
개패장 배를 모아 걸숙주가 들었구나
에라 만수
밤중 밤중 야 밤중 순사 신고 가는 배는
동각으로 질렸구나 우리벗님은 어디가서
각반동세를 모르신가

〈곡성을 읍내리·안귀엽〉

[춘향가]

사 랑 (45)

시들 버들 봄배추는
밤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곡성을 읍내리·김우차〉

[남편 외도]

사 랑 (46)

저 건너라 다박솔 밑에
 얼이 빙빙도는 경포수야
 날으면 날짐승 기는 길짐승
 다 잡아도
 칭칭에 뜨는 외기러기는
 잡지를 마라

저건너라 초당앞에 훨훨피는
 배롱 꽃은 일상반도
 한색인데
 우리집 서방님은 어떤 잠년 눈에 걸고
 검은 창은 어데두고
 흰창으로만 나를 보는가
 저 건너라 개꽃피는 매꽃같은
 지심 발을 못다맬봐
 다 맬라서
 금붕채 긴비너를 잃었구나

〈조사자·김학근〉

[신부노래]

사 랑 (47)

갈보등섭 보는 양은 오봉실에 꽃병인가
 노래부를지 알았으면 노래춤치 차고 올것
 벽장안에 걸어놓고 이집이 혈어 그저 왔네
 조그만은 우리님은 해당안에 꽃일레라

〈삼기면 괴소리·정원임〉

[신부의 급사망]

사 랑 (48)

앞집에서 궁합봐도 궁합에도 못갈 장가
뒷집에서 책력봐도 못갈 장가
고말저말 다 내방치고 엉그덩 정그덩 가는 장가
첫째 모퉁을 돌아서니 까막판치도 까악까악
둘째 모퉁을 돌아서니 피랭이 쓴놈이 내달린다
한손으로 받은 부고 두손으로 펴보니
죽었구나 죽었구나 신부씨가 죽었구나
아버님 어머니 내가 탄 말을 아버지가 타고
아버지가 탄 가마는 나를 주오
내가 탄말을 아버지가 타고 오던길로 도상하오
애라 요놈 쾌썸한 놈 못갈장가를 가지 말라니까
아버님 아버지 두 말씀이나 하시지 말아요
첫째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나락섬이 노지기요
둘째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소도매고 말도 매였네
셋째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콩팥쌈이 노지기요
넷째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조그마한 처남아이
지둥(기둥)잡고서 뱅뱅돌면 새별같은 우리 누님
잠든 듯이 가고 없네
아가 아가 처남아가 그 말씀을 한번 더 해봐라
새별같은 우리 누님 잠든듯이 가고 없네
저기오신 새 매부야 곱게는 생겼네마는
우리 누님은 잠든듯이 가고 없네
아가 아가 처남아가
늬누님 계신 방을 찾아갈려면 어디만치나 계시느냐?

우리 누님을 찾아 가실려면 저건네라 저초당안에
 서창열고 영창열면 우리 누님은 잠든듯이도 가고 없네
 저건네라 저초당안에 건너가
 서창열고 영창열고도 들어가니
 삼단같은 요내머리를 거덩거덩 걷어안고
 잠든듯이도 가고 없네
 전주라 오복수 이불
 돌이 돌이도 덮자고 했더니 혼자 덮고 가고 없네
 잠든듯이도 가고 없네
 요강대와 돌이보자 했는데 혼자보고 가고 없네
 요보장모 요보장인 목생이로 해줄까요
 꽃생이로 해줄까요
 어라 요보사우 두말씀이나 하시지 말아주오
 목생이를 하여도 내가하고 꽃생이를 하여도
 내가 할것이니 두 말씀이나 말아주오

〈곡성을 확정리2구·오영애〉

[임에 대한 욕구 불만]

사 랑 (49)

한삼모시 세자락 창옷에
나주 영삼 들평상에
나에 소리가 웬말인가
삼성에 접보선 석류복을 걸어준덜
임을 보고 보선을 보니 임줄뜻이 전혀 없네

〈삼기면 괴소리·윤문갑妻〉

[소 첩]

사 랑 (50)

탕굴탕굴 탕굴부채
이내탕굴 노매부채
오뉴월이 둘이 되어서
소첩을 주고 산과 좋게
오뉴월이 하나로시

〈오곡면 덕산리·조정순〉

시집살이노래

[월광수를 떠주었네]

시집살이 (1)

그물에 낚을 씻으시고
닭자하네
치마 오른자락을 제쳐놓고
외약자락을 빼서 준께
그 낚은 닭으시고
아나봐라 삼각산 해가 솟아
어른 낚이 되었구나
마흔두칸 기와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판서 이도령 지그머니가 허신소리
명주털도 아니 간놈이 그런 말이
웬말이나
이제라도 나 죽으면 공단매장도 일곱매장
비단매장도 일곱매장
마흔두명 유대군들
삼투선이 단장하네
외일닷새만 놀아주소
마흔두칸 기와집을 누구한테 전장하고
어딜가나
서른두칸 전피방을 누구한테 전장하고
어딜가나
천근만근 식은 전담을 누구한테 전장하고
어딜가나

대국서 나온 남비단
은자넷자 흰 대재른 재어갓고
하루아침 누빈것이 신닷줄을 누비였구나
검은자지 선을 둘러
백사지로 꼴을 내어
허리안에 살짝 둘러써
세조금 삼일만에 끌러내어
새별같은 요광 대와 아리발발 담귀놓고
오동나무 반만통에
박달나무 박망치에
삼각산 흐른 남물
금독 말독 담겨 미뤄놓고
오지락 초지락 씻는다고 씻은 신래
하고오네 하고오네 이판서 이도령
둘째체면 하고 오네
떠달라네 떠달라네 세숫물을 떠달라네
청가수를 떠준께 월광수를 떠달라네
한번 해도 아니듣고 두번해도 아니듣고
30번만에 그물을 이끌어 버리고
삼투선이 단장하네
외일닷새를 노니라고 노닌께
삼투선이 지그아버지 허시는 말씀이
삼투선아 삼투선아 속적삼을 벗어 걸어라
땀내라도 말고 가게
아부이 아부이 속적삼이 있간디라
외씨같은 오선발로 오동동통 뛰어나가

마흔두명 유대군들 삼투선이 행삼 같으면
거기놓고
천리라 만리나 물리치소
이판서 이도령 무슨 잠이 이리 깊이 들었는가
공단매장도 7공매장 비단매장도 7공매장
톡톡 끌어놓고 이판서 이도령 아이고 내가 무슨 잠이
이리 깊이도 들었던가
이판서 이도령 지그머니
천금 만금 식은 전답을 너를 주라
세른 두간 쟈비 방을 너를 주라
마흔 두간 기와 집을 너를 주라
마흔 두간 기와 집도 내사 싫고
서른 두간 쟈비 방도 내사 싫고
천근 만근 식은 전답도 내사 싫고
기왕지라 이리된일 청실홍실이나
맺어주소

〈곡성읍 구원2구·황소남〉

시집살이 (2)

우리댁 서방님은 부질없이 대를 심어 물을 주어
키우더니 길삼 춘풍 야진밤에 기안이가 날쇠기데
물먹같이 나는 죽어 냇가같이 댐이 짓어 한두밭도
어디아닌데 삼세 불을 메고 보니 나무점심은 다 나운데
이내 점심은 아니오네
호미자루를 꺼꾸로 들고 이내 집에 들어오니께
여시같은 시택이 예씨같은 쌀밥을 몰때같은
단간장에 찰사실로 똑똑 떠넣어
성님 올케 성님 어느새 낮절반이 되었고
밥이라고 주은것이 구은 밥을 나를 주네
침치라고 주는 것이 짠지 쪽을 나를 주네
이밥을 먹을거나 말거나 밥사발에 눈물 괴어서
이내 방문 열어보니 정새옹생 곤때 문혀 열어놓고
열두옹 댕기치매 한쪽 뜯어 바람쫓고
두쪽뜯어 전대쫓고 삼단같은 이내머리 어리설음 드는 가세
머리깎고 은까락지 찌던 손 바닷대 바가지가 웬말인가
진댕기 모든 댕기 신던 발질 집세기가 웬말인가
씨고씨고 송낙을 씨고 떼고매고 바람을 메고
금강산절 중노릇을 갈란게 시금 시어머님 아가
며늘아가 정아 이정으로 살아보자
달도 하나 해도 하나 사랑도 하나라네
서울간 내어남군 오시면 뭐라고 말을 할거나
듣지 않고 금강산 절도 중노릇을 갔네
열두상자를 거느리고 매일 상전을 댕기고

하루는 열두상자를 거느리고 마을 동영을 나가니까
 서울이라 서방님 흥부대는 높이들고 말을 타고 노신다
 열두상자야 저양한테 인사드려라 말께서 훌쩍
 뛰어 내려오오
 저중은 무슨중으로서 인사할줄 모르느냐
 아무리 중인들 낭군한테 인사할소요
 당신말대로 흥부대는 어느누가 반가할까요
 당신 반가할 은조령 늦조령은 누가 반가할까요
 아내 받으라는 흥부대는 부모님이 받으시고 은조령
 늦조령은 동생이 반가하고 방문이라고 열어 보니까
 천생홍생 군때 묻혀 걸려있고
 병환이 났네 병환이 났네
 어머니 거동을 보소 점을 하러갈까 약을 지으러 갈까
 여보시오 어머님 약도 말고 점도 말고 금강산 절에가
 중을 데려오시오
 어머님이 중을 데려오셨다
 일어나요 일어나요 금강산 중이 왔소이다
 저는 이네 중의 몸이 되었으니 절로 아니갈 수 없으니
 당신은 일어나서 낭군 좋은 아내 얻어주고 그 좋은 아내 데리고
 잘 살으십시오. 중은 금강산으로 들어갔네

〈오곡면 오지리5구·조영남〉

시집살이 (3)

항아두 봉산 권산밑에 지축캐는 저 큰아가
느그어메 어데 갔는데 해가 지도록 지축을 캐냐
우리 어메 동남군 배를 타고 금로강에 구경갔네
어느때나 오마드냐
질 아래다 죽신 심어 그 죽신이 왕대 되어
왕대에 꽃이 피면 오마더라

시집가는 사흘만에 모를 심으러 가자고 허네
새 대삿갓 숙여 쓰고 모를 심으러 간께
아랫논에 자수얹고 못논에는 별강 얹고
자주 별강 얹은 가운데 서소리(노래)를
허라고 하네

〈홍아기 할머니〉

시집살이 (4)

모시베 닳필 명지베 닳필 잉에 걸어서 던져놓고
봉창문을 반만 열고 내다 본지
능금한쌍 다래한쌍 따가지고
한나 반을 먹다가 여시같은 시누한테 들켰구나
마지라네~ 팔십개를 마지라네
벼개념에 쏘가되어 겨우 한쌍
오리한쌍 쌍쌍이 떠들어 오는구나
우리부모 모실락 건 매 팔십개 맞아죽었다고
마시고 병들어 죽었다고 말하소

〈삼지연 괴소리·김말순〉

시집살이 (5)

호맹이 들고 받을 메니
 하루가 천추같이 날마다 흐른다
 하루는
 머리가 아프고 다리사 쭈셔서
 조깨 쉬는디
 씨어매 와서 크나큰 목성으로
 욱을 해싸서...
 쉬이 일어서 눈물방울을 감추고 (...?)
 날마다 허는 일이 (...?)
 (...?)
 사람 팔자 시간문제로다

〈곡성을 신리7반·박판임〉

시집살이 (6)

우습도다 우습도다 마룻산 커나기도 우습더라
 밥을 허라면 죽을 허고 죽을 허라면 밥을 허고
 부지땅을 짚고 서서 정제문짝 후드르면서
 죽었다네 죽었다네 이웃집에 김도령 죽었다네
 머리를 풀고 곡을 허자니 부모형제 다 아시고
 복을 입자니 동네 일천이 다 알게 생기고
 날다러가소 날다러가소
 이웃집에 김도령아 날다러가소
 명년요매 춘삼월에 다시 한번 돌아오면
 돌가지 캐러 간다고 가서 연마람 마든로
 복치마 입고
 김도령 멧으로 사모제 지내로 가세

〈조사자·김학근〉

시집살이 (7)

순창읍내 대쳐다가
옥과읍내 상자절어
곰곰상자 뺏어다가
한상자는 서림담고
한상자는 봉지들어
친정에도 가는개로
우리머니 배 매시다가
술꼭지를 펼쳐놓고
우리딸도 설움이야
우리아부님 마당쓸다
짜리비를 펼쳐놓고
우리딸도 설움이라
우리오빠 책보시다
책가위를 펼쳐놓고
우리동생 설움이라
우리올케 빼짜다가
미침대로 멀쳐놓고
너도삼년 다 살았나
나도삼년 다 살았다
앞발에다 당과심어
뒷발에다 마늘심어
당과마늘 맵다하되
시누같이 메울손가
고치같이 찢을년아
공단같이 접을년아
누룩같이 드딜년아
한모퉁이 돌아가서
앵두나무 휘어잡고
조리춤을 추여불년

〈곡성읍 구원1구·황소남〉

시집살이 (8)

저 건너 용화당에 국화 모종 부었더니
 국화꽃은 인니다 피고 부모님 꽃이 피었구나
 부모없는
 친구들이 부모님 꽃에 놀러 가자
 구경이야만 가겠지만 옷이 없어 못가겠지
 노랑 노랑 겹저고리 끝동달이
 입고가자 옷이야만 있겠지만 눈물흘려 못가겠지
 세자 세치 명지 수건 눈물 닦기 다졌었네

〈죽곡면 유봉리2구·신정자〉

시집살이 (9)

은가락지 찌던 손에 호뭇자리 웬일인가
 강단같이 신던 발에 집세기가 웬일인가
 아람밖에 나던 허리가 아람안에 들었구나
 주밖에(주먹밖에) 나든 혈육 주마 안에 들었구나
 멀치 같이도 철거리에
 요네품에 손넣어 보소 멀치 같어
 임오라고 편지헌게 임이라고 아니오고
 편지사연 받아본게 약수세만 적어 왔네
 양에 반에(바다) 가렌치나 어린귀에 수단귀다
 눈비산에 꽃순이나
 열두폭 두리치에 한쪽뜯어 바람짓고
 두폭 뜯어 장삼짓고
 한쪽머리 꺾고보니 눈이 캄캄
 두쪽머리 꺾고보니 치매앞이 다 져었네

〈오곡면 오지리·조순임〉

시집살이 (10)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살이 3년만에
목메어나 죽었구나
시어마님 하신 말씀 아가 머느리아가
너희 낭군 우시나의 진주 남강으로 빨래를 가니
물도 좋고 돌도 고와 오동토동 빠는구나
난데없는 말굽소리에 걸눈으로 슬쩍보니
하늘같은 갓을 쓰고 용같은 말을 타고
못본듯이 지나가요
흰 빨래는 희게나 빨고
검은 빨래는 검게나 빨고
집에라고 돌아오니
시어마님 하시는 말씀
아가 머느리아가
너희 낭군 오셨으니
아랫방으로 가보아라
아랫방문을 열고 보니 손색술을 옆에 놓고
젊은 기생을 옆에 끼고 능구탕 뚱뚱 노는구나
이팔청춘 이꼴을 못봐 자기방으로 내려가서
석자세치 명주수건 목메어나 죽었구나
진주낭군 이말을 듣고 보선밭로 뛰어나와
원통하게나 죽었구나 하루기정은 석달이요
본처정은 백년인데 절통하게나 죽었구나

〈오곡면 오지리4구·안상식〉

[며느리]

시집살이 (11)

바람아 바람아 불어도
바람도 철을 알고 때를 알고 부는데
7, 8월 수시도 때를 알고 철을 알고
흔든다
우리댁 시어머니는 때도 철도 모르고
나를 잡고 흔들때로 흔드네
에라 만석~

<곡성을 신리328·박판님>

이 별 노래

이 별 (1)

일락서산에 해떨어지고
월출 동산에 달솟아오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느냐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은 지고 싶어 지느냐

※ 세상이 흐르는 것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세월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노래한 글

〈곡성읍 읍내리1구·선만호〉

[고향을 떠나면서]

이 별 (2)

계명산 추야월에 옥토선이 일어난다
구초당 충천바람 한골전 슬피부니
천지인간 생긴후에 부모처자 귀하더라
강동을 건너갈제 공명도 가소롭다
고향소식 늦어지고 입던 옷도 떨어지면
그 누가 지어줄까
당산악발 늙은 부모 인제보면 언제볼까
이팔청춘 젊은 아내 인제보면 언제볼까
인제가면 언제올래 인제보면 언제올까
금춘 명춘 아니오면 명년춘에 보리다

〈오곡면 오지리1구·이미재〉

이 별 (3)

일락서 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느냐
우리임은 날버리고
가고싶어 가느냐

〈곡성읍 학정2구·김하기〉

이 별 (4)

저건너 초당안에
백년 언약초를 심었더니
백년 언약초는 간곳이 없고
이별 화초만 만발했네

〈곡성읍 학정2구·이 미〉

이 별 (5)

죽었다네 죽었다네
뒷집 김도령이 죽었다네
머리를 풀자니 남이 알고
곡을 하자니 남이 알고
명년 삼사월이 돌아오면
도실염바람 마포치마
노랑노랑 새 삼베치마
입어나 줌세

〈곡성읍 학정리2구·최백석〉

[춘향전 이별가]

이 별 (6)

아이고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찌고 가실라요
인제 가시면 어느때나 오실라요
구관작퇴 연풍시절
꽃이 피면 오실라요
석석에다 진주를 심어 싹이 트거든 오실라요
녹두라는 상상봉이 평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넓고 넓은 사해바다가 육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옥과시장터·김금주>

[춘향가]

이 별 (7)

춘향아 우지마라
온나라 정부라도 가꾼동서 임그리워
규중심처 늙어 있고
한산을 깊은 처량
추월강산이 적막한데
연을 캐면 상상허니
너와 나와 깊은 언약
홍노라도 녹지 말고
다시 볼길을 니가 나오기만 기다려라

<옥과시장터·김금주>

이 별 (8)

시바야 밝은 달은 구름속에 묻혀있고
이내 청춘은 생활에 묻혀 있고
한양가신 우리나라 낭군은
삼천동애가 묻혀 있고

〈석곡2구·김소녀〉

[육자백이]

이 별 (9)

꿈아 꿈아 무정한 꿈아
오시는 님을 보내는 꿈아
오신님 보내지 말고
잠든 나를 깨워주제
임은 가고 잠은 깨었으니
언제나 잠을 다시 이뤄
가신임을 상봉혈꺼나

〈육과면 이문리·김금만〉

[딸이 시집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 별 (10)

왕주왕에 딸이런가 금임금에 손자런가
세월이 여롱예요 혼삿날이 다가왔네
비단대단 붉은 치마 범나무 속치마에
손금대대 속저고리
계속 고름을 잔뜩달아
자르나 잘신 잘라 입고
앞기둥의 연지분해
뒷기둥은 금봉채요
꼭 지르는 화맹석에
진단장으로 보일손가
돌아난다 돌아난다
백달머리 쌍가매는
속속으로 돌아난다
낮에 우는 접동새야
대왕금 부엌금은
평안히 지겠는가
저건너 어리둥실 뜨는 저 명월은
우리 부모를 보련마는
옥담총이 요내 눈은
성재라도 우리 부모를 못보는데
백두산 나무들에 칼을 감직 하다마는
옥담총이 요내 몸은
한번 액자 헤어지면 그림자나 보일손가

※ 옛날에 금임금이 있었는데 딸을 공을 들여가지고 낳다.
결혼을 하여 하도 서운하게 시집을 가면서 임금의 딸이 부르는 노래

〈곡성 구원1구·한동덕〉

[서 당 패]

이 별 (11)

대명칭칭 붉은 날에
어디썩서 볼줄 알아
저건네다 저 연담안에
백년 언약 심었더니
백년 언약은 아니나고
이별화초가 만발했네

〈최 정 례〉

[봄에 부름]

이 별 (12)

저 건너라 초당안에
백년초를 심었더니
백년초는 어디가고
이별초만 만발하네

〈곡성을 읍내리4구 할머니〉

이 별 (13)

만나보고 싶은 맘 홀로 달래며
그 슬픔 그 누구에 말하며
넘쳐나는 눈물을 참고 걸으니
네온의 밤거리를 슬피 떠나네
사랑으로 여워어진 내 그림자를
밤바람도 처량히 불어주누나
참사랑에 쫓겨난 내 그림자는
울면서 웃어야할 신세랍니다

〈곡성을 읊내리·이문순〉

이 별 (14)

저건네라 저 연담안에
백년 언약 심었더니
백년 언약은 아니라고
이별화초가 만발했네

〈최 정 례〉

[성인들]

이 별 (15)

뿌구야 꺾충 날지마라 성생이 보냈는데
 너를 좋아 여기왔고 옥주 사항 화류중에 백아금백
 소년들아 벽오름 칠현금을 네가 말고 저리 즐기느냐
 모르고 저리 즐기느냐 궁상각치우 오음 옥유를
 나다려 물개되면 궁철지 이를 대강만이 르니라
 별후 광음이 우금 삼재에 척서가 단절하야
 약수 삼천리에 청초가 끊어지고 북해만리에 흥달이 없으매
 복천을 바라보니 맘말이 육천이요 운철이 원격하니
 심정이 구열이라 무심한 호정몽은 천리에 오락가락
 정불지 억이요 비불 자성이다
 오음 장탄으로 화초 월석을 보내드서 신관사또
 도입후에 수청들라 하읍기에
 저 사모피 하읍다가 참혹한 악형을 당해야
 장하지훈이 미구에 필터이오니 바라건네 서방님은
 길이 안종록을 누르시고 천추만 세후
 후생이나 다시만나 이별없이 사라지더이다

〈구원2구·장종산〉

[어머니 애도 ①]

이 별 (16)

지춘개야 지춘개야
마산없는 지춘개야
매화같이 나를 두고
저 성문이 문같으면 저 성문이
연지분통 어따두고(어디에다 두고)
쭉대물로 세수한가

〈곡성을 읍내리2구·장분이〉

[어머니 애도 ②]

이 별 (17)

갱야 갱야 지출 갱야
떡잎 같은 우리 어머니
예개 같은 나를 두고
잠든 듯이 가고 없네
밤중 밤중 야 밤중에
쌀날 만치만 보고 싶네

※ 6세 아이가 어머니를 여의고 출상후 돌아와서 아버지 무릎에 엎드려서
불렀다는 노래

〈고달면 백곡2구·오여식〉

[어머니 애도 ③]

이 별 (19)

정월이라 초하룻날 너무집이 애기들은(…?)
 이월이라 한살에는 뚝밑에 여자나무 유득키도 피어난데
 우런마는(우리엄마) 어테가고 피어날찌 모르는가?
 삼월이라 삼짓날은 강남서 나온 제비 우마자는
 성밖에 와 우런마는 어테가고 성신현지 모르는고
 (사월 ?)
 오월이라 단오날은 너무집에 소년들은 남한방죽
 쉬양버들 가지가지 군지매고 군지타기 즐거헌데
 우런마는 어테가고 즐거헐지 모르신가
 유월이라 유두날은 너무집의 엄마들은 대동강 깊은 물로
 메욕가기 즐거헌데 우런마는 어테가고 즐길 줄을 모르신가
 칠월이라 칠석날은 견우직녀 둘이 만나 넘나라고
 좋다헌데 우런마는 어테가고 우런마는 어테가고
 즐기실줄 몰으신가
 팔월이라 한가위에 구곡은 들어가고 신곡은 말발헌데
 우런마는 어테가고 그러신지 모르시네
 구월이라 한골에는 국화꽃을 만발한데
 우런마는 어테가고 그러는지 모르신가
 시월이라 보름날은 연지팔팔 날아든다
 우런마는 어테가고 그런지를 모르신가
 병자년 동짓날 지은 돌 모녀간에
 속절없이 이별했네 요내나이 세어보니
 열흐고도 둘이로시

* 열두살난 소녀가 돌아가신 어머니님을 그리워하며 지은 노래

〈조사자·김학근〉

[어머니 애도 ④]

이 별 (20)

저기 가는 저할머니 우리 어머니 만나걸랑
세살 먹은 우리 애기 배가고파 울드라고
젓좀 먹여 달라고 전해주소
너의 어머니 나무안경 배를 타고
복두칠성 구경가더라
언제나 오신 담디요
병풍에 그린 장담 쪽지 털고 울면 온다네라
삶은 밤이 싹이 나면 온다네라
왕모래 왕대 숨이 밭에서 죽신이 나면 온다더라
어디 산골에 살고 계십디어 산천골에 살으십디어
땀장으로 집을 짓고 쭉땀물로 세수하고
낮으로 구정파니 벼를 삼고
밤으로는 귀뚜라미 벼를 삼고
그러하시고 살고 계십디어
그러하시고 살고 있다 하시더라

※ 세살먹은 동생을 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배고파 우는 동생 젓좀 주라고
하소연하는 노래

〈오곡면 오지리1구·이순남〉

[어머니 애도 ⑤]

이 별 (21)

타박 타박 타박네야

너 어디에 울고 간고

우리엄마 무덤가에

젓먹으러 찾아 간다

산이 높아 못간단다 산높으면 기어가지

물이 많아 못간단다 물 많으면 헤엄치지

명태 즐라 명태 싫다

가지 즐라 가지 싫다

우리엄마 젓을 다오

우리엄마 젓을 다오

〈조사자·김학근〉

상여소리 노래

1. 보유자 : 곡성읍 구원리
2. 조사자 : 김학근 이오봉 서관기

상여소리 (1)

1. 해 설

곡성의 상여소리는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여 관혼상제(冠婚喪祭)가 가정에서 엄격한 윤리도덕의 실천방안으로 풍속화 되고 관습화되어 전래 되어 온 상여놀이를 상례중 초상때 행해지는 것으로 우리 고장은 고려 초기부터 구전(口傳) 되어온 것으로 추천된다.

곡성지역의 상여소리는 다른 어느 지방의 것보다 구슬픈 가락은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고 초상마당이나 행상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한층 슬픔을 더하게 하는 것이며, 가사 내용이 다양하고 장면이 바뀔때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짐과 불교적인 색채가 짙은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2. 노래 장면

- ① 상여를 어울릴때
- ② 상여를 어깨에 멜때
- ③ 상여를 메고 소리할 때

초경부터~3경까지 또는 5경까지의 소리

- ④ 집과 마을 떠날때 하직소리
- ⑤ 거리제 지낼때(오장소리)
- ⑥ 행상(운상) 때(오장소리)
- ⑦ 신위지에 닿을때
- ⑧ 하관후 다지기 소리

3. 노래 소리(노래말)

① 상여를 어울릴 때

초경 아뢰오

에~헤 에~헤 에~허 에~허 에이~사

허허허~ (오장소리)

<2번 반복>

관하 관하 관~음 보살

<2번 반복>

② 어깨에 멜때(들소리)

어~허 어~흠 허흠 허~흠 나무아미타불

<2번 반복>

③ 상여를 메고 소리할 때

<선소리>북망산천 어디라고

고향산천 이별하고 소식없이 떠나십니까?

<받는소리>어~허 어~허 어~허

나무아미타불 <4번 반복>

④ 하직소리(집에서 상주와 동민과 하직 인사)

<선소리> 하직이요 하~직이요

오늘 이자리에 하직이요

<받는소리>어~허 어~허 어~허

나무아미타불

<선소리> 잘계시~오 잘계시~오 동민 여러분들 잘계시오

나는 가요 나는 가요 내자식 내식구 이별하고

북망 산천으로 나는 가요

<받는소리>어~허 어~허 어~허 나무아미타불

〈선소리〉 어제 저녁 오늘 저녁에는 어디가 잘까
오늘날 내부락 앞에서는 놀지만
산천초목을 집을 잡고 새소리 벚을 삼고
나혼자 지내볼까~

〈받는소리〉어~허 어~허 어~허
나무아미타불

〈선소리〉 불쌍허요 불쌍허요 허~어 오늘 떠나는
맹인 양반이 불쌍허요

〈받는소리〉어~허 어~허 어~허
나무아미타불

〈선소리〉 옛그제 적의 지낸 양반 꽃송이 타고
가신다니 사람치고는 못보곳소
요보시오 젊은 청년들
젊다고 자랑하지 마소
아 참 한번 죽어지면 이모양 이꼴이 된다오

〈받는소리〉어~허 어~허 어~허
나무아미타불

〈선소리〉 인제 가시면 언제나 오실려고 오실라~요
명년 이때에 찾아 오실랍니까?

〈받는소리〉어~허 어~허 어~허
나무아미타불

〈선소리〉 세다 보니 만학은 천봉
내려다 보니 백사장이라

〈받는소리〉어~허 어~허 어~허
나무아미타불

〈선소리〉 아이구 하이구 통곡을 하지 말소
한번 떠난 사람이 되살아 올까?

<받는소리>어~허 어~허 어~허

나무아미타불

<선소리> 북망산천 멀다 말소

저건너 안산이 북망산천

<받는소리>

관암~관음~보~살

관암~관음~보~살

어허 어~허 허~허~허우~허

나무아미타불

⑤ 거리제 지낼때 (오장소리 3번)

<선소리> 잡수던 밥상은 개덮어 놓고

북망산천으로 가십니까?

<받는소리>어허 어허~우 어허우 허우허

나무아미타불

<선소리> 왔다 가실려면 그대로 가지지

집안식구에 정을 두고 가십니까?

<받는소리>어허 어허~우 어허우 허우허

나무아미타불

<선소리> 앞산 첩첩 뒷산에 첩첩한데

북방 산천으로 가십니까?

<받는소리>어허 어허~우 어허우 허우허

나무아미타불

⑥ 행상(운상) 때

<선소리> 잡수던 밥상은 개덮어 놓고

북망산천으로 가십니까?

<받는소리>어허 어허~우 어허우 허우허 나무아미타불

〈선소리〉 왔다 가실려면 그대로 가지지 집안식구에 정을 두고 가십
니까?

〈받는소리〉어허 어허~우 어허우 허우허
나무아미타불

〈선소리〉 앞산 첩첩 뒷산에 첩첩한데
북방 산천으로 가십니까?

〈받는소리〉어허 어허~우 어허우 허우허
나무아미타불

⑦ 신위지에 닿을 때

〈선소리〉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네
맹인이 신위지에서 자라고 다 들어가네

〈받는소리〉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음~관음보살 관음보살 관~음보살

⑧ 하관후 다지기 소리

〈선소리〉 하관 다구지할까
에헤 에~헤 에헤 에~헤~이 다구

〈받는소리〉다구 다구 다구 다구 다구 다구 다구

상여소리 (2)

1. 일 시 : 1999. 12. 24 10 : 00
2. 장 소 : 겸면 칠봉리
3. 대 상 : 심형식 (76세)
4. 조사자 : 김학근 조준원 심재현

화~○~화~○~화~○ ~어~어~어~○~○~
 ~황천지 모~아 들기 문턱 밑이~
 황천이~로~구~군~
 ~관~음~보~살~
 인제~가면~언제나~와요 봉~한~날~을~일러~어
 ~관~음~보~살~
 가~는날은 이날만은 오~는날은 기약이 없을~것~은~
 관~음~보~살~
 앞~산도 척~척~하고 뒷산도 척척 한~뒤~
 혼은 어디로 행~아 기~잉~잉 어~어
 ~관~음~보~살~
 일락~저산은 ~해~너~머 가고 벌출동성 해뜨러
 ~에이~ 에~이~이 관~음~보~살~
 인~제~ 가~면~ 언제~나 와~요~
 오늘날이나 일러~주서 관~음~보~살

상여소리 (3)

첫소리: 예 어으 희 나아 허어

뒤통소리: 관아 하 오해 매애

첫소리: 가네 가네 나는 가네 황천초목으로 나는 가네 애애

뒤통소리: 어노 어노 허허허 어아노 어리가리 넘차 어하노

첫소리: 북만산천이 멀고 멀다드니 건너 안산이 북만일세 애애

뒤통소리: 어허 어허허 애해야 어이가리 넘차

어허하노 허이노 허이노 허허허 이이가리 넘차 어하노

첫소리: 인제가면 언제와요 오는 날이나 일러주소

왔다가면 언제나 오실란가 나는 모르겠네

황천초목이 어데다고 황천초목을 간단 말이 웬말이요

뒤통소리: 어하노 어하노 어리가리 넘차 어하노

첫소리: 관아 오해에...

뒤통소리: 관아 오해에...

첫소리: 오늘은 여기서 놀고 내일은 어디가서 놀까 애해

뒤통소리: 어하노 어하노 어리가리 넘차 어하노

첫소리: 잘있거라 잘있거라 후손들이 잘있거라 나는 가네

뒤통소리: 어하노 어하노 어리가리 넘차 어하노

첫소리: 안갈라네 안갈라네 경상도로는 안갈라네

뒤통소리: 어하노 어하노 어리가리 넘차 어하노

첫소리: 오실적에 인사하고 가실적에 말한마디 없이

간단 말이 웬말이요 애 해 애 해

뒤통소리: 어하노 어하노 어리가리 넘차 어하노

첫소리: 불쌍하네 불쌍하네 후손들을 두고 갈라니 불쌍도 하네

뒤통소리: 어하노 어하노 어리가리 넘차 어하노

첫소리 : 하직하세 하직하세 우리 유대군들 여기서 하직하세

뒷소리 : 어하노 어하노 어리가리 넘차 어하노

첫소리 : 여기는 큰다리요 이 다리를 건들라니

노자가 없어서 못가넌네 해이

뒷소리 : 어하노 어하노 어리가리 넘차 어하노

첫소리 : 가세가세 어서가세 나갈길도 바쁘니 어서 어서 가세

첫소리 : 왔고나 왔고나 내자리는 다왔으나 애해

뒷소리 : 어하노 어하노 어리가리 넘차 어하노

첫소리 : 애들썼네 애들썼네 우리 유대군들 애들썼네

뒷소리 : 관아 오해이 관아 오해이...

〈노래 : 곡성입면 창정리3구·강상권〉

처녀 노래

[큰애기 ①]

처녀노래 (1)

산골 큰애기 삼삼아 이고
날만 보며는 옆걸음 친다
네 잡놈 보고서 옆걸음 치냐
가을 바람에 옆걸음 치제

〈곡성읍 읍내리·황순옥〉

[큰애기 ②]

처녀노래 (2)

양실당실 잔디밭에 시누남매
꽃꿇다가 강물애가 떨어졌네
우리 오빠 거동보소
동생 흘목(손목) 제쳐 놓고
우리 형님 흘목부터 잡아간다
나도 어서 죽어서 저와같이 살아본다

〈오곡면 오지리1구·강순애〉

[시골처녀]

처녀노래 (3)

나오라네 나오라네
 산골처녀 나오라네
 청갱미 조밥에 세화젓 놓고
 혼자 먹기는 게심심하고 둘이 먹자고
 나를 오란다네
 심던 보선 불걸어 놓고
 혼자 신기는 심심하고
 둘이 신자고 나를 오란다네

〈삼기면 피소리·김옥순〉

[귀한집 딸]

처녀노래 (4)

보성 애천진진 골목
 머리속고 신한 처녀
 누간장을 녹일려고
 저리나 곱게 생겼는고
 제가 뭇이 고와마는
 전라감사 딸이로세

〈삼기면 피소리·정원임〉

〈예쁜처녀〉

처녀노래 (5)

저건네 행계같은 너던드레(넓은들에)
 꿩(콩) 뜯는 저 크네기
 누간장을 노킬라고
 절이나 곱고곱게 생겼느냐
 나도야 이런망정
 과량님네 딸이로다
 신선님네 술료로시…

〈오곡면 덕산리·조정순〉

담 가

호 남 가 (1)

함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하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 제
홍양의 돋는 해는 보성에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에 둘러 있네
태인하신 우리 성군 예락을 장홍하니
삼태육향의 순천심이요
방백수령의 진안이라
고창성에 높이 앉아 나주 풍경 바라보니
만장운봉은 높이 솟아 층층한 익산이요
만리 담양 흐르는 물은 굽이굽이 만경인데
용담의 맑은 물은 이 아니 용안처며
능주의 붉은 꽃은 곳곳마다 금산인가
남원에 봄이들어 각색화초 무장하니
나무나무 임실이요
가지가지 옥과로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함열인데
이초는 무주하고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시절 무안을 일삼으니
사농공상 낙안이요
부자형제는 동북이라
강진의 상매선은 진도로 건너갈 제
금구의 금을 일어 쌓인게 김제로다

농사하는 옥구백성 임피사의 둘러입고
 정읍의 정전법은 남세인심 순창이라
 고부청청 양류색은 광양춘색이 팔도에 왔네
 곡성의 숨은 선비 구례도 하려니와
 흥덕을 일삼으니 부안제민이 아니냐
 우리 호남의 굳은 법성 전주 백성 거느리고
 장성을 멀리 쌓고
 장수를 돌고돌아 여산석에 칼을 갈아
 남평루에 꽃았으니
 팔도의 좋은 경은 호남이 으뜸이라
 거어등령거리고 지내보세

<전라감사 이서구 작
 곡성군 오곡미산 한영호 보급 >

호남가 (2)

함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고향 보라 하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게
홍양의 돋는 해는
보성에 비취 있고
고창성 높이 없어
나주 풍경을 바라보니

〈조사자·김학근〉

호남가 (3)

함평천지 느란(늙은)몸이 광주고향을 보라헌저
제주어선을 빌려타고 해남으로 들어갈게
고산에 아침안개 영암을 둘러있고
홍양에 돋은 해는 보성에 둘러있고
고창성 나주풍경을 바라보며 만장운봉 높이 솟아
칭칭한 익산이요 백리되면 흐르한 물은
굽이굽이 만경이라 능주에 붉은꽃 곳곳마다 금산이요
남원에 봄이드니 각색화초가 무장하구나
나무나무 임실이요 가지가지 옥과로다
나무나무 임실이요 등속은 화순인데 인심은 함열이요
임초는 무주허고 담기는 영광이라
챙평(昌平)한 좋은세상 무안을 일삼으니
산은 공산 낙안이요
부자형제 동복이라

〈오곡면 덕산리·오귀옹〉

만고강산

만고강산 유람할째 삼십산이 어디메요
 일봉래 이방간과 삼영주각이 아닐까?
 죽장짓고 풍월 실어 봉래산을 올라보니
 철간정락 송색절을 구경하고 단발령을 얼른넘어
 봉래산을 올라보니 천복만악 부홍덜을 하늘위에 솟아 있고
 백천포포 급한물을 은하수를 기울려 놓은듯
 잠든 안개는 쌓여있고 맑은 안개는 잠겼으니
 선경 일시가 분명하구나
 이때 마침 모춘이라 붉은꽃 푸른잎과
 나는 나비 우는새는 춘광 춘색을 자랑하고
 봉래산 좋은 경치 지척에 두고
 못본지가 몇몇 해인가
 일락서산에 지는해는 양류사를 잡아매고 월충동에 돋은 달은
 계수야 머물어라 한이 없이 놀고 가세

〈전 봉 님〉

삼국지(三國志)

앗아라 세상사 쓸곳 없다
군불견 동헌들이
번시 춘창가 소부야 말을 들소
나도 또한 슬프건만
대장단에 높이 앉어
만족 백관 지니시고
골영포 지니 입고
억만군졸을 좌우로 세워놓고
느그들은 꿈작말고 대장무히는 대로 거양하라
군사들이 모두 모아
입도 빠죽이면 눈도 흘기면
주먹총도 놓으면 이라 할적
한군사가 썩 나서면
여보 승상님 제말 한자리 들어보오
한참 이러할적
한군사가 썩 나서며
여보 승상님 지그도 고향 배반한지가
13년이 되었는데
고향 생각이 어찌 없으리오
그리고 한참 혈적에
나는 고향 떠난지 13년이라
부모생각이 어찌 없으리오
또한 친구 썩 나서며
네말 들어놓고 내말 한자리 들어봐라
나도 고향 생각이 간절하여

13년이 되었으니 우리 부모
어머니 뱃속에 들어올 때
세상을 떠날실 때
나를 나서 행화(영화)를 보랴더니
나를 키워서 여윌는데
다래청에 나가 붙들어 왔네
우리 어머니 죽었는가 살았는가 모르겠다
한참 이리할적
伏兵이 뜻밖에 일어나
너 이놈 조자룡아 배피나와
남상하라

〈죽곡 당동·정점례〉

산수가(山水歌)

공부제 작춘추
정필하든 기린과
삼군사공 거동시
천자옥련 코끼리
옥경선관 흥패하던
풍채좋은 사자면
수림풍속 용맹좋은
산수장군 포범이며
서백호 우수산양
비웅비표 저곰이며
강유동 월야성
슬피운다 저하나비
토기삼촌 너구리가 하는 말이
네말이 무식하다
기경삼촌 이태백
나와 둘이 동갑하며
광동 십년에 글을 읽고
나는 민물에 둔재라
미천에 되었으되
太白하고 연갑이니
上席은 험지라
피되어야 옆에 있다
허어니 말이 무식하다
동작대 지은 집은
좌편은 옥련각 우편은 금봉루

이교에 뼈를두고
 조각은 글씨빌어
 동작배 부운하든
 조맹갑하고 연갑이니
 上席을 헐찌라
 토끼가 허는 말이
 허어 네말이 무식하다
 아방궁 높이 짓고
 삼천궁녀 아귀혈계
 실이목지(耳目) 소로하고
 궁심지지 소호락하든
 진씨왕허고 연갑이니
 上席을 헐찌라

〈죽곡 당동·김오중〉

초한가(楚漢歌)

天下가 太平하면
언무수무 하려니와
時節이 분요하야
포연관우 만날줄
사람마다 아는배다
진나라 모진정사
맹호독사 심하더니
사심조차 일단말가
초야에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두고
곳곳이 일어난다
강동에 성낸 범
벽파벽에 잠기롱
각자 기봉 심을모아
선임병 관중 좌옹하리라
깊은 약속 어제이니 오늘이니
어질다 초패왕
일시 세력 믿고
배은망덕 하던발가
무리현 패공이를
아무리 살해코자
홍문에 설변한들
하날에 내신사람
벗어날손 없을손나
유룡제가 하는법을 일러보아 아리도다

우리를 살펴보니
 백모 황홀 청도 대귀치며
 숙적패 주장 명장
 사모장에
 좌우로 늘어서서
 증군에 숙자귀를
 반공에 걸어쓰니
 좌상에 버린룡은
 일등호걸 다 모았다
 거 누구 모았더냐
 제일 일위는 한대조 시위하고
 차제를 둘러보니
 장량 김평 한십정월
 번째등이 좌우로 나열하야
 풍류소리 진탕헌디
 아니 놀고 무엇하랴

〈죽곡담동·김오중〉

천봉인륜홍(千峰引倫紅)[해]

부상에 높이 떠
양곡에 자진안개
月峰으로 돌고
어장촌 개짓고
호양봉 구름뒀다
노하난다 눈되고
부평은 물에 떠
魚童은 잠들고
子規새 날아든데
동정 如天 하시추
금성추파 역으로다
앞발로 벽과 찍어 당기고
뒷발로 벽파를 당탕
이리저리 양금병실 놀이 떠
봉남을 바라보니
지광은 七百里요
파광은 千日色
저네무산 십이봉은
구름밖에 몰고
해후수상 일천리가
안하에 경계로다
악양주 높은 집에
두자미 안저지은 글
동정호로 자웅하고
북방소식 저기러기

소상강을 돌고
 천봉만학 바라보니
 만경백운 구름속에
 鶴聲이 울어왔고
 칠부산 검은 구름
 하공에 등실 높이 떠
 폐산 파묵 울차아요
 정수 무풍 야자파
 물은 술렁 깊었는데
 먼산도 적적 菊花도 잠잠
 진경이 강산 두루미
 날아든다 지아다 보느냐
 반학은 千峰
 날은 굽어보니 벽사지 팡이라
 허리굽고 늙은 장승
 광풍을 못이며 우줄우줄 춤을 추니
 이런장관 어디 있나
 노리장화를 꺾어들고
 淸風明月도 놀러가세

〈죽곡 당동2구·김오중〉

남한산성(?)

남한산성 가메를 걸어
쭉설리에다 불을 열면
근기 금강산 연기만 솟은다
육놀러 천리 삼천여 천리
양떼뜨는 저 처녀야
저산 이름이 무엇이다나
나도야 양떼뜯어
부모 공영 허시느라고
그산 산 이름을 잊었드니
제주야 한라산

〈곡성을 장선리1구·이화순〉

육자백이

귀경가세
강산팔경 올라가니
월성에는 간곳 없고
알심있고 짐멋진 오입쟁이들
수백명 모아
강산팔경 올라가니
월성에 간곳 없고
거문고 한쌍이 걸려
나에 무릎에 엎어 놓고
이줄 잡아서 저리로 동덩
저줄 잡아서 이리 동덩
정계지둥둥 돌아보세

〈죽곡 당월·정점순〉

죽림칠현(竹林七賢)

창남가

반기듣고 소리조차 내려간

엄농탄 여울물에

고기를 낚는 어옹들아

양구 가도 떨쳐 입고

벗을 줄을 모르더라

오호라 슬프도다

금평역기세가 고기를 낚아서

행상곡 돌아드니

竹林七賢 모았더라

영척은 손을 타고

맹호는 나귀 타고

두목집 보는 후에

배락천변 내려가니

장건홍 승사로다

와룡강 초당강에

배우선 손에 쥐고

학창에 흑배 띄고

팔전도 축지법

손오병서 손중에 감았으니

만고 호걸 이제 아니야

〈죽곡 당동·김오중〉

성주풀이 (1)

천지지간 만물지중 인생이 최귀하야
三綱五倫 仁禮智는
대장부 근본이요
선연행화 부모봉양
위인자제가 혈일이로다

에라만수 청천에 뜬 기적아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가느냐
동정으로 가느냐
소상 동정 어데두고
여관 한등에 슬피우느냐
에라 만수

〈죽곡 당동·김오중〉

성주풀이 (2)

에라 만석 에라 대신이로구나
나경산 십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
영웅 호걸이 몇몇이나?
아~차 우리도 아차 죽어지면
저기 저모양 될것이라
에라 만수(세) 에라만서

〈조사자·김학근〉

고구천봉 일지로

고구천봉 일지로 부상에 등실 높이며
 양국으로 자지나니 월봉으로 돌고
 예상천 개가 짓어 호양궁 구름이 뚝 졌다
 노아논다 논데고 불평건물이 등실 떠
 어령(룡?)은 잠자고 잘새는 날아들어
 동서 옛진의 파새초 금사추파가 예기라
 앞밭로 뒷밭을 찍어 당기고 뒷밭로
 착나무 탕탕 요리저리 저리저리
 앙금 등실 높이며 동남을 바라보니
 치광은 칠백리 파광은 천리라
 천에 무상은 십에본 구름밖으로 멀고
 태우 서산에 이 천의는 아낙의 경기라
 아이강노 높은 집은 두제미 앉아서
 쟁그랍다 쟁그랍다 천봉만학을 바라보니
 마이경대 구름속은 학선이 앉어 울어있고
 이골목 꼴꼴 저골목 자르르
 어느로 간단말이나 앞메로 돌아라

〈곡성을 구원2구·이봉순〉

한 탄 가

[소 실]

한 탄 가 (1)

해가지고 저문날에 옷갓(衣冠)을 하고 어디가오
처부집을 가시거든 나죽는 꼴을 보고가오
처부집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봄 한철이요
연못에 은봉어는 사시사철

〈오곡면 오지리4구·선동일〉

[세상살이]

한 탄 가 (2)

콩타작 보리타작은
내맘대로 헨디
이 세상은
내맘대로 못한다

〈곡성을 읍내리2구·김옥만〉

[뉴음을 한탄 ①]

한 탄 가 (3)

이팔 청춘 백발로 안이 늙었다
이팔 청춘 소년들아 백발 보고도 만질 알소
나도 야야 백발 많이 늦고 소년로
내 늙었네
백발은 한번되면 다시나 검기바래 손가
동해 동쪽 뜨는해는 서이로 서쪽 그늘 들어
삼산에 늙어 아는 꽃은 해 해 마다
더 찌어와
칭찬해는 까마귀는 날만보고 깹깹우네

<죽곡면 유봉리1구·한치남>

[뉴음을 한탄 ②]

한 탄 가 (4)

질가운데 노송나무
그 나무 젊은 소년 때는
기러기 질짐승 나래기 날짐승
다 날아 앓더니
그 남어 늙고 고목이 된께
눈먼 귀뚝새 한마리 안날아 양근다

<삼기면 괴소리·김소녀>

[농음을 한탄 ③]

한 탄 가 (5)

바람이 분다 한산 내 벗죄를 갈보바람 분다
세월 가기는 바람길 같으면
사람이 늙기는 물결 같구나
건너너 길미봉 비가 묻어 분다
우장 샷갓을 허리다 매고 김을 매자
빨래를 가자
시랫갱번으로 빨래를 가자
바람이 불고 비가올줄 알면 어떤 잠년이
빨래를 갈것이나
천하 삼거리 휘영 버들원 지마시저서
휘넴 넘어 졌다
높은달에 눈달으듯 낮은산에 재나르듯
양수장미 비파부던 개천바다에 울모운다
얼시구나 정말 좋다
에헤야 상사데야 이 농사를 어서 지어
쌀이 밥에 풀청에 콩을 낱서 선영 넣제사 지내고
양위 옆에 앉혀 놓고 먹어 보세

〈곡성을 신리·이기준〉

[늙음을 한탄 ④]

한 탄 가 (6)

시월아 가지마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는다
춘만 건곤에 복만가
어구 좋구나 서산 인생
날날이 달달이 변경이로다
에라 만서 에라 대신이여

〈삼기면 귀소리·최정례〉

[늙음을 한탄 ⑤]

한 탄 가 (7)

명사십리 해당화야
니 꽃진다고 서러마라
삼사월이 돌아오면
너는 다시한번 돌아오지매는
이내 인생은 한번가면
다시한번 올지를 모른다

※ 花煎놀이때 꽃과 人生을 비교, 人生의 허무함을 노래

〈곡성읍 읍내리7구·오관섭〉

[늬음을 한탄 ⑥]

한 탄 가 (8)

등장가세 등장가세
하늘임 전에 등장가세
끓은이는 늬지를 마고
늬이는 늬지를 마세
호호 좃구나 등장가세
등깁가세 하늘임 전에
등장가세

※ 等狀(等新)전의

늬음을 서러워 끓기를 바라는 데에서 온 노래

<곡성읍 읍내리·양순복>

[과거에 낙제 선비]

한 탄 가 (9)

하늘에야 별성부야 금성방에 책성부야
올과 같이 혼언과제 급제못한 저 선비는
함박에나 새간살이 오손도손 살아보세

※ 과거에 급제는 못하고 살림도 못한 어느 선비의 아내가 한이 되어 부르는 소리

<곡성읍 구원리2구·심순덕>

[고비와 탄식]

한 탄 가 (10)

울어머니 날 낳지 말고
배나 낳으면 개용을 쓸걸
울아버지 날 맹길지 말고
매방석이나 맨들 것인데
멋랄라고 나를 나서
요고생 시키시그나

<조사자·김학근>

[시집살이]

한 탄 가 (11)

못살겠네 못살겠네 시어미 등살에 못살겠네
못살겠네 못살겠네 시어미 등살에 못살겠네
낭군이란 줄랑췌디 셔마디(시어매) 등살에 못살겠네
이팔청춘 젊은 나이에 낭군 없이는 못살겠네

<입면 창정리3구·양옥례>

[아네 죽음을 한탄]

한 탄 가 (12)

유월이라 하심부심 미랑땅으로 장가가오
첫 대문을 열고보니 나락섬이 노지로다
둘째 대문을 열고보니 콩팍(팥)섬이 노지로다
셋째 대문을 열고보니 소도메고 말도 멧네
받아주오 받아주오 이편지 한장 받아주오
죽었구나 죽었구나 심부씨가 죽었구나
밀창열고 서창열고 꽃방문을 열고 보니
죽었구나 죽었구나 심부씨가 죽었구나
장인 장모 울지마오
목생이로 할것ियो
꽃생이로 할것ियो
허러 사우 그말마오
꽃생이도 내가 하고 목생이도 내가 함세

<확정2구·문수동>

고독노래

과부들의 고독 (1)

달가운데 노송나무
한가지만 휘어잡고
새벽바람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너나 슬피울고 가지
잠든 나를 왜 깨우느냐
잠못들어 수심인디
이소리를 듣고보니
잠못자서 가슴 아프지
철석같은 이내마음
눈쌀같이 다 녹는다

〈안 임 자〉

[세월이 유수야]

과부들의 고독 (2)

세월이 유수야 가지를 말아라
꽃다운 청춘의 시절이 다 늙어간다
삼천리 강산에 새 봄이 와요
무강 무강산 창창경개
헤라 좋구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피고자 피었느냐 있진다 꽃진다
서러워 말아라 시냇물은 흘러져서
바다로 가나요 이내 맘은 흘러져서
어데로 가나요

※ 낭군을 멀리 보내놓고 혼자서 한탄하면서 부른 노래다

〈곡성면 구원리2구 467·이봉순〉

계 모 노래

계 모 (1)

동생은은 3살먹고 성님은 7살 먹었는데
잃었구나 잃었구나 우리 모친 잃었구나
우리 서모 허는 말씀 너의 놈들 저건너 논 서마지기를
메라 허네
동생을 업었다가 엉드럭에 잠들어 놓고
삿갓으로 덮어 놓고 논서마지기를 성님다 혼자
굶은 풀은 밭에 밭갈로 밟아 넣고 잔풀은 물고 동동
떠워 놓고 그논을 다메고 동생을 깨와 업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우리 서모 허는 말씀 너 이놈들
잠자고 오느냐 허네 우리 부친 거동 보소
우리 서모 말만듣고 우리 두 형제를 가시랭이 한짐에다
몰아넣고 이리 밟고 저리 차고 우리두 목심은 영영가네
우리 모친따라 영영가네
우리 모친자고 나서 논 서마지가 둘러보니
굶은 풀은 밭길로 밟아 넣고 밭자국은 오목오목
잔풀은 물고 동동 떠있네 저 건너가는 저초로바
본처자식 있거들랑 후쳐 장가 가지 말소

〈읍내리6구·안귀업〉

계 모 (2)

어매어매 이붓어매
배잘짜서 못혈랑가
대안에(뒤걸) 복성 다따먹고
앞에 복성 다따먹고
나 한쪽도 안주고
우리 오빠 장가가면 나도 떡 안주어

〈읍내리3구·심맹순〉

계 모 (3)

추월은 만정하야 산인두렵에 비쳐들제
 청천에 기러기는 푸루루 길루 올고가니
 헌밍고 기가 막혀
 기러기 불러 말을 하되 오느나
 기러가 불쌍한 우리 부친전에
 편지일장전하라고 창을 열고 들어가
 편지를 쓰라할저 한자쓰고 한숨쉬어 두자쓰고
 눈물흘러 글짜가 모더다 수모기 되니 편지를 접어
 들고 창을 열고 나서보니 기러기는 간곳 없고
 창망한 구름밖에 별과 달밤 밝았으니
 헌망인 기가 막혀 방으로 들어와서 방성통곡
 슬피운다

〈오곡면 덕산리·허귀용〉

계 모 (4)

아삼삼 김구름에 초래비 실장 나오신다
 앞에가는 새실대장 뒤에가는 구실대장
 말끝마다 귀엽게 들소
 행치청에 들어가서
 그 술한잔 받아갖고 적음으로 젖어보소
 비상술이 묻어나네
 아짐애쌀 만덕수야
 이리잠깐 나오니라
 이 술한잔 갈라먹고
 행지청에 이별하자

※ 계모가 이붓딸 결혼식에 신랑을 죽이려고 할때 이웃집
 할머니가 노래불러 깨우쳤다는 노래

〈삼기면 괴소리·정원임〉

타령 노래

[밤아타령 ①]

타령 (1)

남복장 하이까라는
전동대를 울러메고
남사랑 숲정골로
활공부나 갈거나
에헤로 방아로구나

<겸면 현정리460·고수남>

[밤아타령 ②]

타령 (2)

에라 좋구나 시들은 이땅에 동풍이 부니
가지마라 새싹이요 송이송이 꽃이 되니
그립던 봄철이 돌아 들어온다
그립던 봄이 돌아 들어온다
에헤 에헤야 에헤야 좋다
에헤 에헤야 에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곡성읍 읍내리7구·이문순>

[홍타령]

타 령 (3)

나는 간다네~
 나두야 간다네~
 훨훨바리고 나두야 간다네
 임을 버리고 에헤야 나두야 간다네
 아이구 대구 허어야~
 성화가 난네
 에헤어야 흥흥흥

〈목사동면 평리1구·강도수〉

[내남군]

타 령 (4)

꼬시랑 머리에 물레줄 댕기에
 언제나 커서요 내남군 될꺼나
 물레야 물레야 빙빙빙 돌아라
 우리님 밤뭇따리 구역이나 미어보자
 살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더니
 바늘상자 풀어서 줄행랑 쳤구나
 낮에는 발에가 잔지심메이고
 밤에는 등아래 현보선 좁는다
 후렴 : 아이고 대고 흥흥으흥
 성화가 났구나 흥

〈곡성을 읍내1구·이말자〉

[산타령]

타 령 (5)

추필은 만정헌디 산호 주름 비쳐줄더
살솔성은 슬피우니 나주안으로 흘러든다
청천의 외기러기 원항의 높이 떠서 프르르륵 깔국
우름을 울고가니
심향고 저기 가는 저 기러기가 소중당
북계성의 편지를 전할 기러기야
도화동을 지나거든 우리 앞뭇보는 부처님한테
내의 편지 한장 전해 다오
기러기 불러 말을 매꼬
밤으로 들어와 한자씨고 설인 짓고
두자씨고 눈물지던 눈물이 똑똑 떨어져
글자마다 승복을 딛다
편지를 거듬거듬 거더취고
창을 들고 나서보니 울던 기러기는
간곳 없고 창망한 구름밖에 별과
알만 두렷이 밝았구나
저 기러기는 저 기러기가 너무 앵만 꾸고 가느냐
신향고가 편지를 땅에다 슬며시 놓고
소리없이 설리 설리 울음을 우느냐?

〈고달면 목동리1구·임홍섭〉

[퐁그랑땡]

타 령 (6)

퐁그랑땡 퐁그랑땡
 뉘가 네가 누구야
 뉘가 네가 누구냐
 산넘어 김서방 막내 딸이나
 어느새 저러꿈 자랐든고(자라났나)
 퐁그랑땡 퐁그랑땡
 뉘가 네가 누구냐 뉘가 네가 누구냐
 에헤 복조리야 복받어라
 퐁그랑땡 퐁그랑땡
 뉘가 네가 누구야 뉘가 네가 누구냐
 웃어라 웃어라
 하하하 허허허 히히히 호호호
 바가지 작작긋고 웃어라
 하하하 허허허 히히히 호호호

〈곡성읍 학정2구·문수동〉

[수월대 타령]

타 령 (7)

동네방내 부자들은
 도둑이 들라 수심이되
 강강수~얼대
 물고밑에 쌀붕어는 물쌀에 지워서
 횡 돌아지네
 강강수~얼대
 먼데 사람은 듣기 좋고
 옆에 사람은 보기 좋네
 강강수~얼대

〈곡성읍 읍내리1구·선만호〉

[창부 타령]

타 령 (8)

한양을 가서 사온뎡기를 두냥을 주고 접었드니
 성안에서 널을 뛰다 성밖으로 잠깐만 잊었드니
 열다섯먹은 이도령아 내뎡기 집었다면 주려무나
 허리아프게 주는 뎡기를 답례없이 너줄소나
 준치를 주어 은혜를 갚나 염량을 접어 은혜를 갚나
 준치 염량은 내사 싫고 여덟폭자리 병풍치고
 일곱폭짜리 치마를 입고 너와 나와 마주 앉아서
 절할때 되기던 너를 주마!
 영걸렀네 영걸렀네 내뎡기 찾기는 영걸렀네
 오동나무 반다지를 짜서 내옷 넣고 내옷 넣고 살다가
 되거든 너를 주마 또 걸렀네 또 걸렀네
 내뎡기 찾기는 또 걸렀네
 석주안에 노귀를 걸고 노귀안에 밥을 지어
 너와 나와 밥을 지어 너와 나와 마주앉아
 먹을때 되면 너를 주마
 영걸렀네 영걸렀네 시잡가기는 영걸렀네

〈오곡면 오지리1구·안정임〉

[바느질 못하는 신세타령]

타 령 (9)

장관방! 장관방
 네모뻐듯한 장관방
 어디서 상지를 내려 놓고
 바느질 못하는 내팔자
 등당에다 등당에다
 장기 등당에 등당에다

〈곡성읍 읍내리·심영순〉

달거리노래

월 령 (1)

달 가운데 계수나무
 은 돛지로 베어 내어
 옥 돛지로 다듬어서 이간 삼각집을 짓어
 이간 삼간 집을 지어
 집에 알건 좋네만은 부모생각 절로나네
 저승하고 에레장에 부모정이 나네 걸세
 세입고 꿈잇어서 열셋에 금보니에 베를 나서
 베공같이 바렛갈고 멧곱같이 다듬어서
 베호방에 담아갔고 저승에 에레장에
 부모장에 가리랑게 어느친구 썩났어도
 자네 베는 좋네만은 그 베갈고
 부모 사영 못할씨네
 먹전에가 먹을 사고
 붓전 에가 붓을 사고
 종이 전에가 종이를 사고
 부모 천자 하늘 천자 쓰고 나니 운문 지체 못하겠다

〈승주군 주암면·이삼덕〉

[한달 일년]

월 령 (2)

정월이라 초하루 세배하는 날
이월이라 한식날 한식찾는 날
삼월이라 삼짓날 제비나온 날
사월이라 초밭에 감동하는 날
오월이라 단오날 유청하는 날
유월이라 유두날 머리감는 날
칠월이라 칠성날 엄마보는 날
팔월이라 추석날 생강먹는 날
구월이라 께라 귀리하는 날
시월이라 시짚날 시제찾는 날
쟁깃날이라 동짓날 팔죽먹는 날
석달이라 날평생 창새먹는 날

< 권 옥 자 >

부인용품노래

[주머니노래]

부인용품 (1)

누네 집에 누룩나무 성네 집에 성누나무
 꼬방 꼬방 장고방에다 숨겼더니
 한가지는 별이 열고 한가지는 달이 열고
 한가지는 해가 열고 해는 따서 주머니
 껍질을 줍고
 달은 따서 안을 넣고
 중별 따서 중침 놓고
 상별 따서 상침 놓고
 무지개로 선을 둘러
 사무태상 끈을 달아
 서울에다 대문밖에 걸어놓고
 올라가는 신관들아 내려가는 구관들아
 요내 줍치 구경하소
 줍칠 낙근 좋네마는 뉘 따라기가 줍줍신가
 아줍에 탄탄이 봉선김이가 중치로세
 올라가는 신관들아 내려가는 구관들아
 줍칠낙근 좋네마는 금전이 없어
 내 못 보겠네

〈삼기면 괴소리·점순애〉

[골미노래]

부인용품 (2)

무릎밑에 골미 놓고 골미 찾기도 낭감하네
헌튼머리에 바늘 꽂고 바늘 찾기도 낭감하네
밥먹는 아이는 밥을 먹여서 재워 놓고
젓먹는 애기는 젓을 먹여서 재워 놓고
병든가장 병들어서 뉘여 놓고
헌틀어진 머리를 거덩거덩 걸어 었고
밤길 걷기도 내가 낭감하네
인복이 좋아라고 전기불 생기고
도망가기 좋아라고 신장로가 넓어서
도망가기가 좋네마는
그런데 이내 나는 가지를 못하는고

〈곡성을 학정리2구·오영애〉

[다듬이]

부인용품 (3)

멀리 어느곳서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
그립다 내 옛날집에 같이 살던
그 외로운 할미
이밤은 어느집에서
같이 살던 누구옷을 다듬는고

〈조사자·김학근〉

[명지पुर리 감는 노래]

부인용품 (4)

고추먹고 맴맴 담배먹고 맴맴
실पुर리 감자 명지पुर리 감자
돌돌 감자 설설 풀린다

〈오곡면 오지리1구·김순애〉

[댕 기]

부인용품 (5)

올아버님 풀안댕기 올어머님 저본댕기
우리올캐 호령댕기 나혼자는 사랑댕기
석자 세치이내 댕기
담장안에 널뛰다가 담장밖에 넘어 떨어졌구나
이내 댕기 주었거들랑 내 손밖에 썩 내놓오
등등같은 홀몸에 감 한숨만 재어주면
이 댕기를 너를 주마
애라
요망한놈 내 몸하나 철색인데
그만한 금액을 주면
그만한 댕기를 못뜯새나

〈오곡면 오지리5구·조기남〉

[보 선]

부인용품 (6)

보선 보선 숨보선 옥양목으로 접보선
허기 싫으면 말드래기 등잔에 고생 시키는가
에야라 살퍼라 싯천대에 열고보니
시월에 단풍에 꽃이로새
꽃앞에는 흰승아 흰승아 앞에 해기로새
깊으로 들면 훨훨 어떠내 잠년이 다따묵고

동 물 노래

[소 ①]

동 물 (1)

짐생이 죽었구나
 짐생이 죽었구나
 생길데도 췌건만은 소몸으로 생겨갓고
 동지선달 설한풍에 허꺼쟁이 현마구에
 계구선달 매겨 놓고
 갈로 가자
 갈로 가자
 입에다가 맘을 써서
 풀을 보니 목을 소나
 물을 보니 목을 소나
 에라 이놈 둥구포리 꿩지로도 내키다가
 고개로도 내키다가
 번개같은 칼을 들고 내살한점 뚝뚝다가
 열두배상 벤지로새

〈오곡면 오지리·노경례〉

[소 ②]

동 물 (2)

짐수왕이 죽어져서 생길데도 췌건만은 (많건만은)
 소몸으로 생겨갓고 동지선달 서남풍에
 현마구에 현꺼쟁이 깍지재에 비지재에
 겨우 석달 목어낭께 정이월에 내달라서
 갈로가자 갈로가자 은답 전답 갈로가자
 입에다가 말을쓰고 풀을보니 뜯을 쓴가
 물을보니 목을쓴가(먹을) 어미놈의 둥그포리(파리)
 어미놈의 둥그포리 고개로도 내키다가
 꿩지로도 내키다가 번개같은 칼을 들고
 내살한점 떼가면은 열두배상 번지로새

〈곡성을 구원2구·안필남〉

[비들기 노래]

동 물 (3)

비들기야 비들기야 비들기가 알을 낳서
 저그가는 저 선배야 붓델라컨 아니치고
 만져보네 만져보네 이내아들 만져보네
 가져갈팔가 염려되네
 께까도 수심이네
 놓고가네 놓고가네 이내아들 놓고가네
 첫아들을 낳거들랑
 (?)

〈오곡면 덕산리·조정순〉

[게우아]

동 물 (4)

게우야 게우야 상게우야
 뒤적먹덕 상게우야
 먹상애가 걸렸느냐
 뜻을 두고 못가기는
 너와 내가 같으니라

※ 옛날 하인들이 밭이 묶여 밖에 나가지 못하는 원망의 한탄

〈곡성읍 구원2구 467·김순덕〉

[두꺼비노래]

동 물 (10)

두껍아 두껍아 네눈이 왜그리 붉으나
에헤 바데등 젊었을제 기상의 집에 다닐때
약주 양관 술한 양판 많이 먹어 이내 눈이 붉습니다
에헤라 명랑하다 두껍아 네몸은 왜그리 투들투들 하느냐
옴오린 가장 품안에 자다가 옴이 올라 그렇습니다
에헤라 명랑하다 두껍아 네가슴은 왜그리
벌떡 벌떡하느냐
에헤 바레등 젊었을 적에 본 가장두고
넌가장 품안에 자다가 본 가장한테 들겨서
이내 가슴이 벌떡 벌떡 합니다
에헤라 명랑하다 두껍아 네발은 왜그리
넓죽하느냐
떡 한틀을 짊어지고 논틀로 받틀로
다 땡겼더니 이내 발이 넓죽 합니다

〈오곡면 오지리3구·정남순〉

[불개미노래]

동 물 (11)

짜까만한 불개미가 세수하고 광건하고
김동진에 김모령을 애식 빼식 돌아가니
김동진에 모말애기 저기가는 저 선비는
박선비 인가 김선비 인가 오 내 방을 구경하소
늑방 일라건 뿔이 있느냐 매그렸다 맥실방
닭그렸다 닭실방 평의 새끼 노는방에
잠한숨만 자고 가소
에라 요년 요망하다 온달 같은 아내였고
반달 같은 첩도 있고 칠십되는 부모있고 글씨 문장
아들 있고 바늘동침 딸도있고 여시같은 종도 있고
너와 같은 아니 첩은 아니봐도 공개하다

〈곡성을 신원리2구·김효남〉

꽃 노래

꽃 (1)

꼬다 꼬다(꽃아) 니 꽃진다고 설러마라
 명년 춘삼월 돌아오면
 봉지 봉지 피어난다

〈검면 현정리460·고수남〉

[국 화]

꽃 (2)

국화야 국화야
 네 얼굴이 오직 좋냐마는
 3월 춘풍 호세월을 다 넘기고
 낙로한칠 찬바람에
 내가 홀로 피었으니
 능승고줄이 네가 너뿐이로다

〈오곡면 오지리·노경례〉

[무궁가]

꽃 (3)

가을 바람 우수수 불어와서
 갈대잎 하나 바람에 불려
 재추재록 넘어서
 물위에 떠서
 흐른다 흐른다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태평1구·손두표〉

[찔레꽃]

꽃 (4)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나라 내고향
언덕위에 조각산이 그림습니다
자구 고루 입에 물고 눈물젖은 이별가를
불러주는 못잇을 친구야

남쪽나라 십자성에 어머니 얼굴
눈에 익은 나에 고향 꿈속에
보이며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바닷가 저 편에 고향 산천
가는 길에 절로 보이네

<김 공 례>

[물망초]

꽃 (5)

강남달이 밝아서 임의 놀든고(遊)
구름속에 그의 얼굴 가리워 있네
물망초 핀 언덕에 외로이 서서
기나긴 이 한밤을 어이 새울가
강남달이 지연은 외로운 신세
부평 저 앞사귀에 물새가 우네
차라리 이 몸이 잠을 이루도다
임이 절로 오시여 깨울때까지

<곡성을 읊내리1구·정연오>

민속놀이

[강강수월래]

민속놀이 (1)

- 1) 문문 지야
 문열 열라
 무슨 문을 열러란가
 열대없이 못열겠네
 그작저작 열어두소
 두둥개 두둥개 두둥개
 강강 수월래

- 2) 경상두 지하자 밭자
 어느 지안가
 이름을 몰라 모르겠네
 허허 경상두 지야에
 어떻게 들어가야 한가
 그작저작 들어가소
 두둥개 두둥개 두둥개
 강강 수월래

※ 옛날 더벅머리 소녀 시절에 불렀던 노래

〈남원시 금지면 용정리2구·김양임〉

[농악 노래굿]

민속놀이 (2)

하—다 심심한게 노래 한개를 불러보세
 궁당쿵 궁당쿵
 우리 댁 서방님은 한참 소년 시절에
 기운에 발렸네
 망근 죽반(15개)을 짊어지고 그래도
 한짐이 못되어
 바늘 한쌍을 옷짐을 연치어지고
 아랫채 행랑 모퉁을 월참을 댓다네 <석곡면 능파리·김재근>

[줄 싸움]

민속놀이 (3)

얼털털 - 산이로구나
이 짝저 짝 좌우편 동무들
심을 다하여 심을 쓰세

〈석곡면 능파리·손일섭〉

[그네뛰기]

민속놀이 (4)

수천당 심어진 낭군 군지를 메어
이마야 줄밀어라
입이 뛰면 내가 밀고
내가 뛰면 입이 밀고
입아 밀기 좋다고 너무 밀지 말라
줄 떨어지면 정이 떨어진다
너무 밀지 말라 줄 떨어진다
정들기는 어려워도 정 떨어지기 쉽다
밀기 좋다고 너무 밀지 말라

〈곡성을 장선1구·이화순〉

[밤에 논 놀이]

민속놀이 (5)

밤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씩 떨어진다
 누구일까 만나고 싶네
 아이고 무서라 올까 싶네
 숨자고나 어서가세
 그런데로 한 세상 지냈네

※ 사람을 숨겨 놓고 찾는 놀이

〈남원시 금지면 송정리·강양임〉

[액막이 놀이]

민속놀이 (6)

어릴러럴	디덜방아야	응아차	응아
"	잘도간다	"	"
"	우리마을 잘도한다	"	"
"	밭도 맞추고	"	"
"	호홉도 일치하네	"	"
"	잡귀도 쫓고	"	"
"	병마도 쫓세	"	"
"	가뭇도 쫓고	"	"
"	풍년 기원하세	"	"
"	아들 낳고	"	"
"	딸도 낳세	"	"
"	과일도 풍성	"	"
"	우리마을 낙원일세	"	"

보유자 : 곡성읍 죽동리·김정태

조사자 : 김학근

[목도 놀이]

민속놀이 (7)

다 저 ~~~~~ 의 이 ~~~~~	홍야차	홍야	반복
(선소리) 시작	(후소리)	(")	
홍야차	홍 야	홍야차	홍야 홍야
올라간다		"	" "
내려간다		"	" "
다리가 나온다		"	" "
항우장사도		"	" "
늪기전에		"	" "
조심 조심		"	" "
산도 좋고		"	" "
물도 좋다		"	" "
밭도 조심		"	" "
앞도 보고		"	" "
낙끈낙끈		"	" "
잘도 한다		"	" "
목마른다		"	" "
쉬고 쉬고		"	" "

[당산제 축원가]

민속놀이 (8)

해운은 壬午年이고
 달은 잡아들어
 正月이 上元이라
 날로 잡아 보름달은
 丙字午字 일이로다

 어디서나 正房의 土地神님은
 앉아도 三千里
 서도 三千里
 民國萬里 晝夜千里
 굽어보시는 皇帝土地之神

 降臨하시라고 이 臣下직 사람들이
 모두 각기 各姓받이
 精誠모아 祝願하네

 土地之神 모실때에
 더럽고 미치한 부정부터 조심하네
 수십부락 수백가구에
 명정 어찌 가리오며
 부정을 어찌 가리오까마는
 보는것도 부정이요
 듣는것도 부정이라
 목욕재배 의복 빨아입고
 殺生喪主罪人 제외놓고
 개고기 닭고기 먹은 사람

빼어놓고

男女老少 모두 나와

土神께 비나이다

今年 액은 없애주고

집집마다 웃음꽃이 활짝피네

살기 좋은 이내 마을에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영명하신 土地神께

비읍니다 비읍니다

무릎이 닿도록 빌고 빌어

祝願합네다

보유자 : 곡성을 죽동리·박세현

조사자 : 김학근

수심가

[실수]

수심가 (1)

건곤이 유리하여 남자를 내의시고
무정세월이 여류하여 우리 청춘을 다 늙게 난지라
소자침도 연명 공뱅자 같은 분네들은
죽어 사후에 가도 유족이나 있건만은
초로같은 우리 인생들은 아차 한번 실수되면
만수 장님이 구름 안개로구나

〈오곡면 오지리4구·선동일〉

[삼대독자]

수심가 (2)

꼬방꼬방 장꼬방에
여자 탕자는 근언이 좋아
한부지에 돌이 열고
동남풍이 곳을 치면
떨어질까 수심일세
삼대독신 외아들은
병이들까 수심이네

〈삼기면·최정례〉

[금 실]

수심가 (3)

유자 석류는 근언이 좋아
한쪽지가 돌이 얼어
바람만 불어도 떨어질까 수심일레

〈삼기면 괴소리·정원임〉

수심가 (4)

청춘 하늘에는 잔별도 많고
요내 가슴에는 수심도 많고요
저건네 세내 갱변에는 자갈도 많고요
요내 가슴에는 수심도 많다

〈삼기면 괴소리·김수덕〉

효 노래

[아 들]

효(孝) (1)

이 산 저 산 낭강뒤에 전라도 다박을 심어
 대마도 마대 뻗혀 놓고
 씨루 올께 박을 따라
 떨어졌네 떨어졌네
 낭강물에 떨어졌네 거등보소 거등보소 우리 오빠 거등보네
 곁에 있는 나를 짓혀놓고 먼데 있는
 저희 처만 생각하네 남자되어 부모형제 섬겨 보세

〈황 순 옥〉

[양친부모]

효(孝) (2)

왕상은 모친병에 어름궁에 잉어나오
 맹종은 국혜허여 눈속에 죽신을 구하여
 양친 승효를 허우면서
 우산에 지는 해를
 건곤으로 매여두고 북당에 할발양친 더디 늦게
 하여 가며
 열역으로 학문하여 입신양명 더욱 좋을지
 동원도리 변시춘 창가 소구야 웃지 마라
 청춘 봉운 깨고 나니 백발 설움이
 더욱 넓다
 공자 왕손도 처량하구나

효(孝) (3)

건넛집이 일남이는 가난하여서 나무께 한짝 신한짝
불쌍도 하라 그래도 공부는 첫째 갑니다
하루에 죽 한끼니 어려움도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하루는 마주 앉아
슬피웁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 합니까
자식이 불효로 그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마시요
내일이 방학이니 방학하거던 낮에는 금도 메고 소도 메고요
밤에는 새끼꼬고 신삼아서
양식 팔고 나무살께 걱정 마시요

〈곡성읍 읍내리 3구2반·하영애〉

시 조

[독 서]

시 조 (1)

生古가 멀다하되 不先不後에
 이세 낫다
 四海가 넓음터도 之東之西에
 갈디 업다
 五車書 닐너각고 生撥(擴)白髮

〈竹谷 鳳亭·梁梅士〉

[변형사설 ①]

시 조 (2)

못하는 시조를 하라고 하시니
 못하여도 하오리다

고저 청탁 다버리고
 어단성장(漁端聲長) 하오리다

아마도 차방중(이방중) 비우종기는 나쁜

〈三岐 槐所·姜 赫〉

[변형사설 ②]

시 조 (3)

이러니 저러니 하여도
 내의 말을 들으시오

말못할 사정이요
 우리 못할 서름이라

밤중에 이리궁굴
 저리궁굴 궁굴궁굴

〈三岐 槐所·姜 赫〉

[변형사설 ③]

시 조 (4)

일년 삼백 60일인데 춘하추동 사절이라
꽃피고 버들잎 누르면 화조월석 춘절이고
황국 단풍 추절이요 녹음 방초 하절이나
근풍이 소실해고 동방에 버래울면
황국 단풍 추절이요 백설이 분부하면
천산에 조비절이요 만경에 인정머리라
창송 녹주동절이라 인상칠시고래이라
사시가격과 무정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가니
그만 놓고 합시다

〈오곡면 덕산리·오귀용〉

[군자지도]

시 조 (5)

월백 지백 천지백하니
산심 야심에 객수심이로다
유아 독청 여송백이나
충절지절(군자지도)를 수하 지리요

아취육면 군차거 하니
일배 일배 부일배라
인생을 일장의 춘몽이라
가는 광음을 뒤라서 잡으리

〈곡성읍 읍내리1구·오연호〉

자 장 가

자 장 가 (1)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앞집에 흰동아(개이름) 짓지 마라
뒷집에 황구(黃拘)야 짓지 마라
우리 애기 잘도 잔다

<고달면 백곡2구·오여식>

자 장 가 (2)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우리 애기는 이쁜게 꽃밭에다 꽃이불에
꽃요에다 꽃베개에 따둑따둑 재워주고
넌(他)의 애기는 미운게
개똥밭에 쇠똥밭에
뒤굴뒤굴 재워주세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곡성읍 읍내리4구·양복순>

권 주 가

[술 ①]

권 주 가 (1)

앞동산에 봄춘자요 뒷동산에 푸른 청자라
 가지가지 꽃화자요 구비구비 내천자라
 동자야 술가득 부어라 마실음자라 열간주로다

〈오곡면 오지리1구·박순실〉

[술 ②]

권 주 가 (2)

찰떡 메떡 배를 무어
 불개미도 돛을 달아
 띄웠다네 띄웠다네
 조총간에 띄웠다네
 소주 약주 알바랑이 붕께 밀렸다네 밀렸다네
 안주 섬에 밀렸다네

〈삼기면 행정리·김조약〉

[뱃놀이]

권 주 가 (3)

술사실고 가는 배 동강으로 실려라
 음자락이 낙수배 십년정강 백포산
 스리미 안주를 던지실어 술정술정
 배돌려라 스리미 안주를 던지실어
 강릉 경포대 달맞이 가자

※ 한가한 날 밤 배놀이를 하며 술과 안주로 동무를 삼아 달맞이 가는
 길에서 부른 노래

〈곡성을 구원2구·이순엽〉

기 타

[잉태할때]

득 남

우리 어머니는 낱실적에 왕대 죽신을 원했든가
 마디마디도 맺히더라
 물고 밑에는 버금도 총총
 시내 갱변에는 자갈도 총총
 청천 하늘에는 찬별도 많네
 요내 가슴속에는 잔수심도 많네

〈곡성을 학정2구·오영애〉

1910년대 학도가 (청년가)

학도야 학도야 청년 학도야
 벽상에 패종을 들어 보시요
 한소리 두소리 가고 못오니
 인생은 준마같다 석광 움하라
 대우는 성현이되 석촌음하시니
 아들은 범임이라 석분음 할지라
 하물며 우리 인생 청년 학도들아
 배울때 당하여서 아니 배우고
 마침내 후회한들 무엇하리요

〈곡성을 읍내리1구·오연호〉

점 음

백금의 보석노을 왕관을 준다해도
흠냄새 맘에 젖어 배적삼만 못하더라
순정에 맘이 솟는 내젊은 가슴속엔
내맘대로 버들피리 꺾어도 불고
내노래 곡조따라 참새도 운다

〈곡성읍 학정리2구·황순옥〉

바 다

남문을 열고 바래를 치면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곡성읍 읍내리·김두화〉

팔 자 타

넌들 산에 네타이나
넌들 산에 내타이나
느구부모 타이로다

〈정 순 애〉

대나무 노래

우리 어머니는 낱실적에
왕대 죽신을 원했든가
마디 마디로 맺히더라
물고 밑에는 버금도 총총
시내 강변에는 자갈도 총총
청천하늘에는 찬별도 많네
요내가슴 속에는 잔수님도 많네

〈오곡면 오지리7구·홍아기〉

꿀베기 노래

동무야 동무야 꿀 베러가자
낮을 갈아 짙어서라
큰애기 무덤으로 풀뜯으러 가자

〈조사자·김학근〉

나 비 야

나비야 나비야 박나비야
너를 보고 손을 주라
닭을 보고 손을 주라
박을 보고 손을 주라

〈삼기면 괴소리·최정례〉

봄 배 추

시들시들한 봄배추는
아니나 밤이슬에 시달렸네
에라 만석~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쓸어진 나무 눈비가 맞아서
고목나무 쓸어진 다 썩어 났구나
에라 만석~

〈곡성을 신리328·박판남〉

사 위

사울락건 좋네 맞건 글씨 한장 들었거늘
 말세 한장 들어 보소
 우리 딸은 남산 밑에 원 뚜꺼비 도심하네
 비단 공단도 열리는데 일간 치요 어려운가
 어제 오는 새신랑은 반만큼만 열어 보소
 닭아 닭아 우지마라 날아 날아 새지 말아
 새는 날이 아니 썰까 개야 개야 짓지 마라
 짓은 개는 아니 짓을 쓴가 아랫방에 한입들아
 어서 빠버 침 채려라
 가네 가네 나는 가네 모른님을 따라서 나는 가네
 <곡성을 읊내리 6구1반·안귀엽>

딱주캐는 아이

저건너 신상봉에 딱주캐는 아가들아
 느그 어머니 어디가고 해다된디 딱주캐냐
 우리 언머님 금강수 배를 타고 구경일랑 가셨다요
 언제새나 온다드냐 노발중에 죽순심어
 그 죽순이 왕대되어 왕대끝에 회가 얹아
 그 끝에서 잎이 피어 잎속에는 꽃이 피니
 꽃을 때서 머리꽃고 잎을 따서 최공불고
 최공불면 최공소리 듣고 오신다요
 <황 남 순>

미 나 리

제저머 미나리 한번 내다 본께 물박 밑에 질렀구나
삼세번 내다본께 질기 같이 질렀구나
우리 아버지 장두칼로 다발같이 비어 내어
열내을에 디쳐다가 오리 같은 장작내와
오리 살짝 디쳐내어 삼년 묵은 거름 장에
오년 묵은 장에다가 뭍게 뭍게 묻혀 갔고
우리 아버지 밥상에다 오복 쏘복 담아 놓고
우리 엄마 밥상에다 오복 쏘복 담아 놓고
우리 아버지 밥상에는 병자꽃이 피었구나
우리 어머님 밥상에는 늑자꽃이 피었구나
우리 오랍씨 밥상에는 극작꽃이 피었구나
우리 성 님 밥상에는 극작꽃이 피었구나
우리 아버지 죽는날은 하늘 가운데 달이라도
우리 어머님 죽는 날은 달뒤에나 땅라 가신
우리 오랍씨 죽는 날은 돌가운데 다리라도
우리 성님 죽는 날은 세미밀에 정제라도

〈죽곡면 유평리1구·조사자 김학근〉

봄이로세

봄이로세 봄봄봄봄 봄이로세
이화도화는 만발하고 피꼬리들은 피피꿀 피꿀
별나비는 너울너울 강남제비 춘풍속에
남쪽 나라를 찾아오니
봄봄봄 봄이 왔네 봄이로세

〈곡성읍 죽동리·김순자〉

남이장군

백두산석은 마도지니오
 두만강수는 읍하무라
 남하유신에 미평국이면
 후세 수치는 대장부라

〈오곡면 오지리4구·선동일〉

달가운데 계수나무

짱금 짱금 짱가락지 오구방에 빈 가락지 먼디서 보니
 전미로시 옆에서 보니 달이로시 크네기 현자 자는 방에
 숨소리가 돌이로다 오라바니 오라바니 안주없는
 술잡수시고 거짓말도 말으시오
 동지 선달 서남풍에 문풍지 떠는 소리나 들어보시오
 동으로 동쪽 뺨은가지 옥짜구로 사모직어
 금도치로 찍어내어 삼간 초당 집을 지어
 옥녀야 실녀야 잠들어라 청채(이름) 집으로 놀러가자
 첨채라는 거동봐라 눈빛같은 백달 보신
 구하보를 받아 신고 너울비단 접저고리
 주리적삼 받차업고 대왕 대단에 흥단치마
 성노 주름을 잡아입고 밀 지름에 절은 머리
 가닥가 닥아 집어 여고 석차세치 주자 수건 맵시가 지게
 와지잘끈 잘라매고 께꼬리 한쌍 술삼을 받아
 범나부(나무) 한쌍 춤을 추어
 맛이 좋기는 청강수요 빛이 좋이 좋기는 국화수요

〈곡성읍 구월리2구·김월님〉

흥부놀부

옛날 옛날 한옛날에 흥부 놀부 살았대
 맘씨 고운 흥부는 제비 다리 고쳐 주고
 박씨하나 얻어서 올밑에 심었더니
 주렁 주렁 열렸대 북바가지 열렸대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금슬금 톱질하세
 하나 켜면 금나오고 둘을 켜면 은나오고

옛날 옛날 한옛날에 흥부 놀부 살았대
 심술긋은 놀부는 제비 다리 다쳐 주고
 박씨하나 얻어서 올밑에 심었더니
 주렁 주렁 열렸대 헛바가지 열렸네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셋을 켜도 금은 없고 넷을 켜도 은은 없다

〈곡성을 신기리·박양순〉

박연폭포

박연~폭~포~흘러 내리는 물~은
 범~사~정으로~감 돌~아 든~다
 에~ 에루화 좋~구 좋~다~
 어~람마 디어라~내사~랑~아
 간데~마~다~정~들~여 놓~고
 이별이~찾아서~못 살~겠~네
 에~에루화 좋~구 좋~다~
 어~람마 디어라~내 사~랑~아

〈곡성을 읍내리·정명섭〉

골목바람

노랑노랑 삼베치마
골목바람에 다 떨어지네

〈곡성읍 확정2구·오영애〉

순 단 쏘

고구 천봉 일지로 무상에 등실 높이여 양국으로 자지나니
월봉으로 들고 예산천 개가 짓어 호야궁 구름이 뚝뚝다
노야 높다 논데고 불명 건물이 등실떠 어령은 잠자고
잘새는 날아들어 동서 옛진이 파새초 금사 추파가
예기다 앞발로 뒷말을 짝어 당기고 뒷발로
창나무 땅 땅 요리 저리 저리 저리 앙금 등실
높이떠 동남을 바라보니 치광은 칠백리 파광은
천리다 천에
무상은 십예본 구름 밖으로 멀고 해우 서산에
이 천의는 아낙의 경기다
아이 강노 높은 집은
두제미 앓아서 쟁그랍다 쟁그랍다 천봉
만학을 바라보니 마이 경대 구름속은 학선이
앉어 울고 있고 이 골목 꼴꼴 저골목자르드
어든 메로 가잔 말이야 앞메로 돌아라

〈조사자·김학근〉

뱃 노래

한탄강 한탄강 무슨 한이 많아
한탄강이라 불리었나
어기영차 어기야 어기영차 어기야
에이야로 앓오
어기영차 술영술영 배띄워라

〈곡성을 읍내리3구·심정자〉

아주까리 동백

강원도라 강대콩은
아그대 다그대 열렸구나
충청도라 청대콩은
아그대 다그대 열렸구나
열라는 콩꽃은 아니열고
아주까리 동백만
주리나 가지나 열렸네

〈곡성을 읍내리1구·선만호〉

사도세자 (세의태자)

금이야 옥이야 태자로 봉한 몸이
뒤지 안에 죽는구나
불쌍한 세의 태자

꽃피는 청춘도 영화도 버리시고
가실때엔 참새들도 울었소

〈곡성읍 학정리 583·여금숙〉

갈길이 바빠

길동자야 신들려라
갈길이 바빠서 못 놀고 가겠다

〈곡성읍 학정2구·김하기〉

누나 주라

저건네라 연담안에 연방보는 저처가 남아
연방일랑은 보소마는 느그누님 나를 도라(주라)
느그누님 나를 안주면 칼찬목은 내 뭉졌네
칼찬 몸을 자네 쉽게 우리 누님 내 못주겠네

〈삼기면 괴소리·김말순〉

문전 새전 노래

문전 새전에 박달나무 흥두깨 방맹이로
다나간다 경주산 본딩에 박달나무
팔자가 좋아서 크네기 손목에 다 녹아난다

〈오곡면 오지리1구·김순애〉

돈실로 가자

돈실로 가자 돈실로 가자
영광 범성으로 돈실로 가자

〈곡성을 확정2구·이 미〉

한 라 산

육로 천리 수로 천리
구구 이천리 삼천리 들어가니
양태뜨는 저 처녀야
저 산이름이 무엇드냐
나도야야 여기서 나서
여기서 커도 저 산이름을 몰랐더니
옛날 옛적 노인들이 하든 말씀이
제주 한라산이라고 하십도다

〈삼기면 괴소리·김말순〉

봄

정 이월 다가고 삼월이라네
강남 갔다 제비가 돌아오면서
이땅에도 돌아 갔던 봄이 온다네
아리랑 아리랑 강남을 어서나 가보세

〈오곡면 묘천리·김준성〉

고 향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아이 손을 잡고
감자숨고 수수심어 두메산골 내고향
못살아도 나는 좋아 애로와도 나는 좋아
눈물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찾아든다

〈석곡온수·안임자〉

谷城의 農謠·俗謠

1999년 12월 15일 인쇄

1999년 12월 28일 발행

발행처 : 곡성문화원

발행인 : 김학근
편저자

인쇄처 : 청진문화사

☎ (062) 223-4346
